메트로 2013년 11월 4일 월요일 제2844호 www.metroseoul.co.kr

Entertainment p/17

김재중 '화려한 솔로' 행보

친구폰 가격 듣고 배앓이 '분통'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을 둘러싸고 정부와 이동통신사, 제조사와 대리점 등 이해관계자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최근 진행된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에서는 보조금 문제로 인해 '단말기 유통구조 제도 개선법' 통신비 원가 공개 등이 중점 사안으로 다뤄졌다. 왜 단말기 보조금을 둘러싼 갈등이 이처럼 깊어지는 것일까?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에 대한 갈등은 어디에서 시작하고 있는 것인지, 해결 방안은 없는지 집중 진단한다.

들쑥날쑥한 단말기 가격에 소비자들 구매할때마다 '손해본듯' 찜찜
국회 '단말기유통구조 개선법' 추진에 업계 "해외단말기만 좋은 일"

집중진단 '휴대폰 보조금'

<글 싣는 순서>
1. 보조금 제대로 받고 계십니까
2. 이동통신사만이 책임인가
3. 유통구조 이대로 좋은가
4. 해외에서 말하는 실상은
5. 보조금 논란 대책은 뭐냐

A씨는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출고가 89만9000원의 삼성전자 갤럭시S4를 보조금 27만원을 받고 62만9000원에 구입했다. 다음날 A씨는 갤럭시S4를 같은 날 구입한 친구 B씨로부터 충격적인 사실을 들었다. B씨는 휴대전화 대리점이 아닌 롯데 하이마트에서 17만원에 구입한 것. 무려 70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은 사실을 들은 A씨는 곧장 휴대전화를 구입한 대리점에 항의하며 환불을 요구했다. 하지만 대리점에서는 법적으로 정당하게 판매한 것이 왜 잘못된 것이냐며 오히려 법은 지키며 일하는 사람이 시기꾼으로 몰리고 있다고 울분을 토했다.

B씨는 한 인터넷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출고가 99만4800원의 LG전자 'G2'를 카드사 선할인 조건으로 70만원 할인을 받았다. B씨는 4만5000원 상당의 요금제 유지를 조건으로 요금제 추가 할인을 통해 결국 공짜로 휴대전화를 구입하는 셈이 됐다. 하지만 B씨가 휴대전화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판매점이 지급한 순수 보조금은 0원이었다. 카드사 선할인은 결국 B씨의 카드 이용에 따른 포인트를 미리 받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B씨의 호주머니에서 고스란히 나간 셈이고, 요금제 할인은 B씨가 매달 이용하는 통신요금에서 차감해주는 본사 지원의 할인 형태이기 때문이다. 결국 이 대리점에는 본사에서 가입자 유지 시 지급되는 지원금을 B씨에게 어떤 혜택도 제공하지 않고도 모두 챙길 수 있었다.

◆ 현행법상 이통사만 처벌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며 정치권에서는 국민의 가계 통신비 인하 및 시장 경쟁 체제를 보조금을 통한 소모적인 경쟁에서 단말기 자체 가격인하를 통해 서비스 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을 국회에 발의했으나 아직 계류 중이다.

실질적으로 보조금 재원은 크게 이통사 지원금과 제조사 장려금으로 나뉜다. 현행법상 불법 보조금에 대해서는 이통사만을 처벌토록 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은 사업자·대리점의 보조금 지급 요건 및 내용을 의무 공시하고 제조사 장려금을 보조금 단속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방통위는 "보조금 규제의 실효성, 규제 형평성 확보를 위해서는 제조사의 차별적인 장려금 제공 등에 대한 규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국회에서 논의 중인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제정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과연 이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일부에서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통과 시 국내 제조사에 대한 제재만 집중적으로 이뤄질 뿐 결국 애플 등 해외 단말기 유통만 활성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국내 제조사가 글로벌 시장에서 승승장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막상 정부가 발목을 잡는 꼴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 문제를 놓고 정부가 각종 요금 및 보조금 규제책을 만들어 제재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면서 "긍정적인 시장 경쟁 체제를 유도하는 진취적인 제도와 정책 마련이 오히려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3일 서울 도심의 한 이동통신 대리점이 단말기 보조금 홍보 문구로 도배가 됐다.

국감 우수의원 34명 중 28명 '민주'

새누리·정의당 각각 3명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3일 2013년 국정감사를 상임위별로 모니터링해 적극적인 활동으로 국정 운영의 감시자 역할을 한 의원 34명을 우수의원으로 선정해 발표했다.

상임위별로는 법사위 서영교(민)·전해철(민), 정무위 강기정(민)·김기식(민)·민병두(민), 기획재정위 박원석(정)·이용섭(민), 외통위 박병석(민)·심재권(민), 국방위 김광진(민)·안규백(민)·진성준(민), 안행위 백남순(민)·이찬열(민)·진선미(민), 교문위 유기홍(민)·윤관석(민)·정진후(정), 미래위 유승희(민)·최민희(민)·최재천(민), 농해수위 김우남(민)·김춘진(민)·이운룡(새), 산자위 박완주(민)·오영식(민)·정수성(새), 보건복지위 김용익(민)·김현숙(새)·최동익(민), 환노위 심상정(정)·장하나(민), 국토위 문병호(민)·박수현(민) 의원을 선정했다.

민주당 의원이 28명으로 압도적으로 많고, 여당인 새누리당과 정의당이 각각 3명씩 선정됐다.

다만 경실련은 올해 국감에 대해 "여야가 민생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지만 결국 정치 공방에 파묻혀 행정부 견제와 민생 현안이 외면당했다"며 "실효 있는 질의가 부족하고 정책 대안 제시도 한계를 보였다"고 평가했다. /김민준기자

지역 건보료 439억 경감

부과기준 '전월세 기초공제금' 500만원 상향 추진 … 세대당 월 5600원 줄듯

서민 지역가입자 65만 세대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월평균 6000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영찬 보건복지부 차관은 지난 1일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중) 현재 300만원인 전월세 기초공제금을 50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월세 보증금 기초공제금이란 건보료를 매기는 항목 중 하나인 전월세 보증금의 일부를 공제해 주는 것으로 공제금이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되면 보험료가 매겨지는 보증금 액수가 줄어들어 보험료가 내려가게 된다.

복지부가 유재중(새누리당) 의원에게 보고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개선안'에 따르면 전월세 보증금 기초공제금이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면 전월세 지역가입자 328만 세대 가운데 19.5%인 65만 세대에 연간 총 건보료 439억원이 경감되는 효과가 나타난다. 이에 따라 세대당 월평균 건보료 역시 5600원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또 9년 이상 자량은 연식에 관계없이 부과금이 같아 노후 자량을 가진 지역가입자들이 재산 가치에 비해 과도한 부담료를 물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복지부는 9년 이상 차량에 대해 연식을 추가로 구분하는 방향으로 부과 기준을 세분화할 방침이다.

◆노후 차량 보유자 경감도 추진

복지부는 전월세 서민과 노후 차량을 보유한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부담 경감 방안을 확정한 후 연내에 관련 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윤채혜기자 hsoul38@metroseoul.co.kr

"108m 메주 맛 며느리도 몰라요" 3일 막을 내린 제8회 순창장류축제 참가자들이 '세상에서 가장 긴 108m 메주 만들기' 프로그램에 참가해 메주를 만들고 있다. /순창군 제공

교육부 '지방대 특성화' 위해 1조 지원

교육부가 내년도 '지방대 특성화사업'에 1931억원 지원을 시작으로 5년간 1조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 대학에 진학하는 2015학년도부터는 지방 대학이 지역 소재 고교 졸업자 중 일정 비율을 선발하는 '지역인재 전형제도'가 시행된다.

이와 함께 공무원 선발 시 지방대학 졸업자가 일정 비율 이상 선발되도록 하는 '지역인재 채용 목표제'가 5급 공무원에 이어 7급 공무원으로 확대된다.

교육부는 3일 관계부처 공청회와 전문가협의회, 관계부처 의견 조회 등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의 '지방대학 육성방안'을 발표했다.

'지방대학 특성화사업' 지원 분야는 대학자율특성화 분야와 국가전략특성화 분야로 나눠 대학이 스스로 강점 분야를 특성화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특성화 분야가 특정 분야에 몰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타 부처들이 추진 중인 국가 전략산업과 연계된 분야에는 별도의 비율을 할당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지역 소재 고교 우수 졸업자가 그 지역 지방 대학에 우선 진학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인재 전형제도'는 2015년부터 시행된다.

공공기관의 경우 지역 인재 채용 비율을 준수토록 기관별 특성에 맞는 '지역인재 채용할당제'를 도입하는 등 지방 대학 졸업생에 대한 취업 기회도 확대된다. /윤다혜기자 yahie

무소속 안철수 '창당 준비위' 이달 발족

독자 세력화를 추진 중인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이달 안에 '창당준비위원회'를 발족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3일 안 의원의 싱크탱크 격인 정책네트워크 내일 관계자들에 따르면 신당 창당을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창당준비위원회가 이르면 이달 중순, 늦어도 이달 말께 발족된다.

광주·전남지역의 한 실행위원은 "11월 중 창준위가 발족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역별로 임명된) 실행위원들이 창당 발기인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밝혔다.

안 의원 측은 현재까지 경기, 인천, 충청, 전북, 부산, 경남, 제주에서 지역 조직을 담당할 실행위원 1차 인선을 마쳤으며 광주, 전남에선 2·3차 인선까지 완료했다. /김민준기자

"미네르바 박대성 기소는 정당" 위자료 소송 기각

법원이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 논란을 불러일으킨 '미네르바' 박대성(35)씨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 기소가 정당했다고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단독은 3일 박씨가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며 국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전기통신기본법 위반으로 기소한 전례가 거의 없다고 해서 박씨에 대한 공소 제기 자체가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기소 자체는 적법했다고 판단했다.

앙증맞은 '뻐꾸기' 3일 오전 인천 문학경기장에서 열린 '2013 인천광역시 시민생활체육대회' 패퍼퍼 경연대회에 각 구청 대표로 출전한 어린이 참가자들이 앙증맞은 춤을 선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버스·택시 운전자, 승객 없어도 '금연'

버스나 택시 등 사업용 여객자동차의 운전자는 앞으로 차 안에 승객이 없을 때도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3일 운수 종사자의 차량 내 흡연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4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 규칙에선 승객이 탑승한 경우에만 버스와 택시 등 운전자의 차내 흡연을 금지하고 있다.

앞으로 차 내 흡연 전면 금지 규칙을 위반한 운전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박상우 국토부 대중교통과장은 "차 안에서 흡연하면 냄새가 배 승객이 불쾌하게 느낄 수 있다"며 "심의를 거쳐 연내 개정안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윤훈기자

12억 탈세자 '20억 폭탄'

지능적 상습탈루 기업주 징역 3년에 벌금형 선고

지능적으로 세금 12억원을 포탈한 기업주가 법원으로부터 벌금 20억원의 '벌금 폭탄'에 실형까지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12부는 3일 매출을 줄여 거액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등)로 기소된 지모(44)씨에 대해 징역 3년과 벌금 2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년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포탈한 세액이 모두 12억원에 달하고 아직 세금을 내지 않은 점, 조세 관련 관청에 재산이 압류된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식품 잡화 노소매업을 운영하는 지씨는 2010년 3월~2011년 5월 매출 1백억 상당을 속인 세금계산서를 제출해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세금 12억원가량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고궁의 가을 "원더풀" 세례 완연한 가을 날씨를 보인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와룡동 창덕궁을 찾은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후원으로 들어가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연합뉴스

그는 광주 서구, 경북 고령, 경기 용인 등에서 피자 체인점 등에 치즈 등 식재료를 공급하는 식품 유통업체를 운영하면서 영세 도매업체들을 상대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지 않거나 액수를 축소해 소득을 줄여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종합소득세에 대한 누진세 적용을 피하려고 자신이 실질적으로 업체를 운영하면서도 다른 사람 명의로 소득을 분산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민준기자 mi.kim@metroseoul.co.kr

공항공사 공공구매 대통령상

한국공항공사(사장 김석기)가 지난달 31일 '2013년 공공구매 촉진대회'에서 단체유공 부문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중소기업청이 주관하는 이 대회는 중소기업의 제품 구매 확대와 지원 실적이 탁월한 공공기관을 선정해 포상하는 제도로, 공항공사는 중소기업 제품 구매 실적뿐만 아니라 신기술 제품 구매 확대 등 정부의 공공구매 정책 이행에 있어 선도적인 노력을 인정받았다.

강서구 "비리 얼씬 마" 내부감시시스템 가동

부산 강서구가 직원의 공금 횡령, 인허가 비리를 막고자 내부 감시 시스템을 가동한다고 3일 밝혔다.

먼저 강서구는 지방재정(e-호조), 지방세, 세외 수입, 새올(인허가), 지방 인사 등 5대 행정정보 시스템의 자료를 교차 연계하는 청백-e 시스템을 통해 업무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자동으로 잡아낼 예정이다.

발견된 오류는 업무담당자와 함께 감사실 등에 동시에 전달돼 비리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청백-e 시스템으로 확인되지 않는 복지, 건축 인허가 분야에서 발생한 부적절한 업무는 담당자나 관리자가 진단표에 따라 점검하는 자가 진단을 시행해 걸러낸다.

강서구 관계자는 "공무원 개인의 도덕성과 공직 윤리를 확립할 수 있는 청렴 교육 실적관리와 함께 청백-e 시스템, 자가 진단 제도로 비리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아체육, 건강체육지도사 자격연수과정 수강하세요

(사)한국유아체육교육협회와 (사)세계웃음건강박수협회는 오는 9일 제15기 공인 1급 유아체육지도자 및 제2기 건강체육지도사 자격연수를 개강한다고 3일 밝혔다.

오후 2시부터 7시까지 총 4일간 진행되는 이번 연수는 유아교육 관련 학과, 체육학과 졸업생 및 재학생, 체육관·유아 관련 단체에 종사하는 선생님, 주부 등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특히 주말을 이용해 2개의 자격증을 동시에 취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강의는 한국유아체육교육협회 및 세계웃음건강박수협회 강의실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문의 051)441-5511

부산웨스틴조선 '까밀리아' 올해의 인기요리 특선 선봬

부산 웨스틴조선호텔은 뷔페 레스토랑 까밀리아에서 11월 1일부터 12월 19일까지 2013년 한 해 동안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던 요리를 엄선해 '2013 까밀리아 인기 요리 특선'을 선보인다.

이번 인기 요리 특선은 매콤한 광동식 깐풍기, 사천식 해산물 볶음, 탕수육 등 중국 요리와 함께 데리야키 소스의 장어구이, 메로구이, 새우구이, 지중해식 참치 샐러드 등이다.

까밀리아는 25인 이하의 소모임이 가능한 개별 룸이 마련돼 있어 분위기 있는 연말 모임에 적격이다. 가격은 점심 6만2000원, 저녁 7만2000원(세금·봉사료 포함)이다. 문의 및 예약 051)749-7434

부산시민공원에 '5억짜리 운치'

향토기업 동일, 내년 상반기 개장 앞둔 공원에 한식형 정자 기부

부산지역 대표 향토기업인 (주)동일(회장 김종각)이 부산시민공원에 한식형 정자를 건립해 기부할 예정이다.

부산시에 따르면 오는 5일 오후 (주)동일 김종각 회장이 허남식 부산시장을 방문해 부산시민공원에 기부하는 5억여 원 상당의 한식형 정자 전달식을 갖는다고 밝혔다. 기부된 정자는 복원되는 전포천 하류부 우안에 설치돼 공원 이용객을 위한 전망 및 휴게공간 등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주)동일은 1981년 설립된 종합건설업체로서 시공능력 전국 평가순위 64위의 부산지역 대표 향토기업이다. 부산,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약 2만여 세대의 공동주택을 공급했고,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도 5000여 세대의 공동주택을 공급하는 등 전국적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해 가고 있는 업체다. (주)동일은 설립 후 30여 년 동안 저소득가정, 독거노인 등 소외된 이웃을 위한 기부와 지역 사회공헌활동 및 장학 사업도 꾸준히 펼쳐오고 있는 향토기업이다.

동일 김종각 회장은 "건실한 향토기업으로 성장한 것이 혼자만의 노력으로 이룩한 게 아닌 만큼 이웃들과 함께 나누고, 앞으로도 복지재단을 설립해 나눔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산시민공원은 보상비를 포함해 총 사업비 약 6679억원이 투입된다. 2006년 하야리아 부대 폐쇄 후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부지 반환 등을 거쳐 2011년 8월 토목공사 착공 이후 올 12월 말까지 주요 시설을 완료해 내년 상반기에 공원 개장식을 가질 예정이다.

/황덕균기자 jhk@metroseoul.co.kr

국내 최초·최대 세관 부산세관 130돌 행사

부산경남본부세관은 개청 130주년을 맞아 다양한 기념행사를 펼쳤다. 부산세관은 1883년 11월 3일 부산해관으로 개청됐다.

2일 부산세관 남측 마당에서 백운찬 관세청장과 지역 주요 기관장, 직원, 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청 130주년 기념식을 열었다.

기념식에서는 'BS 부산은행 찾아가는 악단'의 현악 6중주와 '부산 중구 소년소녀 아리랑합창단'의 합창, '부산세관 남성 중창단'의 중창 등 다채로운 음악공연이 흥을 돋웠다.

세관은 이날 1878년 우리나라 최초의 세관인 두모진 해관을 기념하기 위해 당시 해관이 있었던 부산 동구 수정동 부산진세무서 인근에 '두모진 해관 표지석'을 설치, 제막식 행사를 열었다.

두모진 해관의 위치를 알아내기 위해 승정원일기, 왜사일기, 동래부읍지, 관련 논문 등 사료를 찾아 연구했다.

또 서울대 규장각에서 소장하고 있는 1872년 부산항 두모진 지도, 1875년 일본군 지도, 일제강점기와 해방 이후 부산항의 지도들을 비교해 부산 동구 수정동 부산진세무서와 그 인근에 최초의 세관이 설치된 사실을 확인했다.

세관은 직원들이 모은 돼지저금통 130개와 압수된 위조 상표 신발 1300여 점은 상표 제거 후 소외계층에 전달했다.

이 밖에 기념우표를 발행하고 8일까지 도시철도 1호선 중앙역에서 부산세관 130년사 사진전을 연다.

부산세관은 현재 부산시와 경남 11개 산하 세관(용당, 감천, 거제, 마산, 양산, 창원, 사상, 사천, 부산국제우편, 진주, 통영)을 관할하는 우리나라 최대 세관이다.

트레스타 '제주올레걷기축제' 공식후원 눈길 아웃도어 브랜드 트레스타는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2일까지 진행된 '2013 제주올레걷기축제'의 공식 협찬사로 나서 축제 기간 동안 '클린올레 캠페인'을 적극 홍보하고, 참가자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모션 활동을 진행했다.

감만창의문화촌 놀러오세요

6~10일 부산문예교육지원센터 이전 후 첫 행사

감만창의문화촌으로 이전한 부산문화재단 부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센터장 하경희)는 이전 후 첫 행사로 오는 6일부터 10일까지 부산지역 문화 예술 교육 관련단체들과 함께하는 문화 예술 교육 축제를 개최한다.

이번 축제는 지역 문화 예술 교육 축제 '문화예술교육 데이즈(Days)'와 '2013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결과 발표회 '여기가 @꿈자!'로 진행된다.

'문화예술교육 데이즈'는 6~8일 문화·예술 교육과 관련한 워크숍, 다큐멘터리 극장, 라운지 체험교실 프로그램 등으로 진행된다.

이어 '여기가 @꿈자!'는 9~10일 올 한 해 부산에서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사업을 수행한 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축제로 진행된다.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는 아동, 청소년, 가족들이 다양한 문화 예술 장르를 경험토록 해 관련 분야의 소질을 계발하고 진로 탐색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전시 및 체험 행사, 무대 공연과 이벤트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해 지원센터의 지역 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참여 단체와 어린이 무형문화재 전수단, 우리가 만드는 오케스트라, 학생들도 그간의 교육 성과를 뽐낼 예정이다.

전시 부스에서는 올 한 해 문화예술 교육을 통해 만들었던 닥종이인형, 봉제인형, 도자기, 재활용 의류 액세서리 등 수업 결과물을 확인할 수 있고, 체험 부스에서는 직접 브로치나 헤어핀, 솟대 등을 만들어보고, 악기 놀이 체험도 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마련된다.

자세한 내용은 부산문화재단(www.bscf.or.kr) 및 부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www.bsarte.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황덕균기자

지스타 '반쪽 반짝임'

14~17일 벡스코서 글로벌게임쇼 지스타 2013 열려
정치권 게임규제 여파 국내 참여 줄고 해외업체 늘어

434개 기업이 참가해 실관람객 19만 명을 기록한 지스타 2012 행사 모습

아시아 최대의 비즈니스 마켓으로 성장을 표어로 내건 국내 최대 게임쇼인 '지스타 2013'이 10여 일 앞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정치권의 조장도 게임 규제가 쏟아지면서 국내 대형 게임업체들의 불참으로 외국 게임사 잔치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올해 지스타 전시장은 2261부스로 전년 대비 7.1% 확대됐다. 이는 역대 최대 부스 규모지만 비즈니스 상담 공간(B2B부스)이 늘어난 것에 비해 일반 관람객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B2C부스는 감소했다.

B2B전시관의 면적은 모두 1만8000여㎡로 작년 1만3200㎡보다 4800㎡ 확대됐다.

B2C전시관은 2만6000여㎡로 작년과 같지만 전시 부스는 작년 1385부스보다 150부스 줄어든 1235부스로 마련된다.

B2B전시관에 들어서는 기업은 넥슨 다음 네오사이언 모나외 제닉스 등이 이름을 올렸을 뿐 대·중견기업 대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이처럼 대형 게임업체들의 외면으로 지스타는 공식 협찬사 확보에도 애를 먹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올해 B2C전시관은 국외 게임사의 확대로 구색을 갖췄다. 해외 기업으로는 블리자드, 닌텐도 워게이밍, 엔비디아 소니전자 오큘러스VR, 샌디시크 등이 신작과 신제품을 들고 참여했다.

이는 비즈니스 측면적인 강화를 통해 국외 기업 유치를 확대하고 글로벌 비즈니스로 도약하기 위함인 것 같다.

국내 대형 게임사들의 불참 이유는 내놓을 신작이 없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우리나라 게임 산업은 콘텐츠 수출의 60%이상을 창출해 10만 명을 고용하고 있다"며 "사회적 역기능만 예로 들어 규제를 늘려가면 누가 투자를 해 신작을 만들겠냐"라고 말했다.

한편 지스타를 찾은 관람객의 대부분이 대형 신작을 위주로 관람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최악의 경우 올해 지스타는 대형 게임사와 기대작이 크게 부족한 반쪽짜리 행사에 그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현재 국내 게임 시장도 한 치 앞을 모르는 모바일게임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옮겨가고 있어 대형 게임사들의 허리띠를 더욱 졸라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지스타는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가 주목하는 행사다. 많은 국가에서 여러 게임 관계자들과 팬들이 11월이 되면 부산을 찾는다. 이달만큼은 부산이 곧 대한민국 이미지기 때문에 그만큼 지스타를 바라보는 눈은 많다. 또 그 중요성은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런 만큼 외형적인 측면보다는 내실에 힘써 지스타 참가업체들이 최고의 투자 효과를 거두고 관람객들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정혁균 기자 jhk@metroseoul.co.kr

송도해수욕장 '빛 축제'로 물든다

8~17일 개장 100주년 행사

올해 개장 100주년을 맞은 부산 서구 송도해수욕장에서 8일 화려한 빛의 축제가 열린다.

부산항 빛 축제 조직위원회는 8일부터 17일까지 열흘간 '제4회 부산항 빛 축제'가 열린다고 3일 밝혔다.

부산항 빛 축제는 부산시와 영도구 중구 서구가 마련하는 원도심 통합 문화축제다.

'빛'이라는 독특한 소재를 이용해 겨울을 대표하는 부산의 문화관광 콘텐츠로 진행되고 있으며 2010년을 시작으로 올해 4회째를 맞는다.

예년 구별 순회로 열려 올해는 중구에서 열려야 하지만 송도해수욕장 개장 100주년을 맞아 특별히 서구에서 펼쳐진다.

축제는 특별전의 형식으로 '천년의 빛 – 추억 담은 100년 행복 담을 천년 송도'라는 주제로 열릴 예정이다. 8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빛 주제관 빛 공장 빛 체험관 부스가 들어서 '빛 조각전' '빛 사진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축제 내내 상설공연도 펼쳐진다.

특히 해상에는 빛 축제를 대표하는 64m짜리 대형 해상 조형물인 '행운의 열쇠'를 띄워 관광객들이 이 조형물을 밟으며 직접 바닷길을 걷고, 열쇠의 중앙 부분에 소원을 적은 소원 초를 띄울 수 있다.

/연합뉴스

부경대 간호학과 첫 나이팅게일 선서식 지난달 31일 부경대 자연과학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회 간호학과 수여식에 참석한 졸업생들이 나이팅게일 선서식을 하고 있다. 이날 간호학과 예비 졸업생 여명은 나이팅게일 선서식에서 생명을 돌보는 간호사로서의 사명과 윤리를 갖춘 전문 간호사가 될 것을 다짐했다.

경남정보대 정용주 교수 교수학습연구대회 최고상

경남정보대학교 호텔외식조리계열 정용주(42·사진) 교수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주관 '2013년 교수학습연구대회' 자연과학 분야에서 최고상인 교육부장관상에 선정됐다.

3일 대학 측에 따르면 정 교수는 이번 대회에서 '예비 오너 셰프의 창업 역량 향상을 위한 APBL 기반 학습모형연구'라는 과제를 출품해 선정의 영예를 안았다.

정 교수의 이번 발표 과제는 외식 조리를 전공하는 학생들이 꿈꾸는 오너 셰프가 되기 위한 도전정신, 열정, 창의성, 자기 계발, 긍정적 사고, 책임감, 판단력 등 12가지 요소를 설정해 발표와 토론, 평가를 통해 형성하도록 모델화한 것이다.

/정혁균 기자

국립해양박물관~부산역 내일부터 셔틀버스 운행

대중교통권 부족에 따른 관람객 불편을 줄이고자 국립해양박물관이 박물관과 부산역을 오가는 셔틀버스를 운행한다.

국립해양박물관은 5일부터 박물관~부산역 셔틀버스를 운행한다고 3일 밝혔다.

셔틀버스는 평일(화~금요일) 5번, 토요일 7번, 일요일·공휴일에는 6번 운행한다. 평일에는 오전 10시, 11시30분, 오후 2시, 4시, 6시20분 박물관을 출발한다.

부산역에서는 오전 10시30분, 낮 12시, 오후 2시30분, 4시 30분, 7시에 출발한다.

토요일에는 평일 운행하는 셔틀버스에 오후 7시30분, 9시20분 박물관을 출발하는 셔틀버스가 추가된다. 일요일과 공휴일에는 오후 7시30분 박물관을 출발하는 버스 1편만이 추가된다.

/연합뉴스

하늘 나는 '윙슈트 플라잉' 선수 조나단 플로레스

땅 위에서 가장 빠른 사나이는 우사인 볼트다. 그렇다면 하늘에서 가장 빠른 사나이는 누구일까? 익스트림 스포츠인 '윙슈트 플라잉' 선수로 활동 중인 조나단 플로레스. 날다람쥐 복장으로 하늘을 나는 플로레스의 이야기를 1일(현지시간) 메트로 콜롬비아 보고타가 들어봤다.

슈퍼맨도 탐낼 날개옷 20벌

metro Colombia

–윙슈트 플라잉에는 언제부터 관심을 가지게 됐나

▲날아다니는 물체는 언제나 내 관심거리였다. 나비, 새, 그리고 별똥별까지. 열세 살 때 우연치 않게 낙하산을 탈 기회가 있었다. 그 이후로는 말 그대로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 스무 살 때 낙하산 전문가 과정을 거쳤고, 하늘을 나는 건 내 삶이 됐다.

–하늘을 날 때 기분은

▲세상에서 가장 '순결한' 감정이라고나 할까. 자유롭고 강렬하다. 하늘을 나는 순간에는 몸과 마음이 완전히 하나가 된다. 마치 종교처럼 거룩하고 영적인 경험이다. 또 내가 사랑하는 일을 매일 할 수 있어 행복하다. 난 정말 행운아인 것 같다.

–무섭진 않나

▲사실 두려움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 어쩌면 우리에겐 오히려 두려움이 필요하다고 볼 수도 있다. 두려움을 잃고 자만하게 되면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한 존경심도 사라지고 자칫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윙슈트는 어떻게 제작되는 건가

▲윙슈트 한 벌을 제작하는 데 상당히 정교한 기술이 필요하다. 의상의 재질과 날개의 균형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 특히 체중과 날개의 균형을 잘 맞추는 게 중요하다.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윙슈트는 20벌 정도다.

–가족이나 친구들이 사고 등을 걱정하지 않나

▲모두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살고 있다는 것을 잘 안다. 사고 위험성도 있지만 그런 게 두렵다고 내가 사랑하는 일을 그만두고 싶지는 않다. 이 직업 덕분에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들도 알게 됐다. 아내도 그렇게 만났다. 하하하.

–언제까지 선수 활동을 계속할 생각인가

▲내게 힘이 있을 때까지는 계속해서 비행할 것 같다.

/루카스 트루 기자·정리=조선미 기자

프랑스 물들인 '빨간 모자 시위대' 프랑스 서부 캥페르에서 2일(현지시간) 시민 1만여 명이 일자리 감소와 환경세 등에 대한 불만을 표출, 루이 14세 때인 1675년 제도된 세금에 반발한 브르타뉴 지방 시위들처럼 붉은 모자를 쓰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프랑스 정부가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해 각종 세금을 인상하자 최근 프랑스 곳곳에서 대규모 시위가 열렸다. /AP 연합뉴스

오바마케어 '뜻밖 복병'

신청등록 첫날 홈피 접속장애로 300만 방문자 중 불과 6명만 성공

미국의 새 건강보험 제도인 오바마케어 웹사이트(HealthCare.gov)에서 신청 첫날 등록에 성공한 사람이 6명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현지시간) 미 보건 당국의 보고서에 따르면 첫날 300만 명이 웹사이트를 찾았지만 접속 장애 등 기술적인 결함으로 대부분 등록을 마칠 수 없었다.

이 보고서는 신청 이틀째인 지난달 2일 보건복지부 산하 소비자정보·보험감독센터(CCIIO)가 정리한 것이다. 당시 보건부는 신청 첫날 웹사이트 방문자 수만 공개했을 뿐 등록을 완료한 사람의 숫자는 밝히지 않았다.

신청 이틀째 100명이 등록을 마치는 등 상황이 점점 나아지고 있지만 아직 웹사이트가 완벽하게 작동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웹사이트의 작동이 멈추는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구글 등 미국의 IT 대표 기업에 지원까지 요청했다. 현재 수십 명의 컴퓨터 엔지니어와 디자이너들이 웹사이트를 정상적으로 작동시키기 위해 밤낮으로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The system is down at the moment.

오바마케어 웹사이트에 자주 등장하는 시스템 장애 메시지.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지난달 25일 웹사이트 총 방문자가 2000만 명을 넘어섰다. 물론 등록까지 완료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웹사이트의 시스템이 점차 안정되면서 등록 상황이 좋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웹사이트를 12시간 정도 일시적으로 차단, 온라인 접수 및 등록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보수 작업을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미국 국민은 내년 3월 말까지 오바마케어 웹사이트를 통해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웹사이트에서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한 뒤 자신의 건강 및 재정 상태를 고려해 선택하면 된다.

/조선미 기자 seonmi@metroseoul.co.kr

달콤살벌한 '좀비의 키스' 2일(현지시간)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열린 좀비 워크 전에 행사에서 좀비 분장을 한 커플이 입을 맞추고 있다. /AP 연합뉴스

"엿듣지마"…미·독 스파이 금지 협정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도·감청 파문으로 사이가 불편해진 '형제국가' 독일과 미국, 두 나라가 조만간 서로 감시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은 '스파이 금지' 협정을 맺을 전망이다.

3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최근 백악관을 방문한 독일 대표단이 회의에서 관계자들과 양자 협정 체결에 합의했다.

독일 정부 소식통은 내년 초쯤 양자 협약이 체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독일 정부는 미국과의 신뢰 회복을 위해 미국에 특사단을 파견했다. /조선미 기자

손, 발 질환치료 왜 중요할까?

발가락질환 「무지외반증」 주의!

미니금속나사 교정 절골술로 치료가능
초기에 치료하면 치료만족도 높아

치료 전

치료 3개월 후

발가락 때문에 고민인 여성들이 많다. 특히나 맘에 드는 신발도 신을 수 없는 휘어진 발가락은 또다른 콤플렉스가 되고 있다. 신발도 문제지만 엄지발가락 뼈 있는 부분이 아픈 것은 더 문제다.

이처럼 무지외반증 치료를 미루다가 엄지발가락 부분에 뼈가 튀어나와 신발을 신어도 아프고, 걸을 때도 아파서 고통을 호소하는 사례가 많다. 병명은 무지외반증이라 부른다.

무지외반증의 증상은 계속 아픈것은 아니지만 가끔가다 쑤실 때는 무척 아플 수 있다. 날씨가 따뜻할 때는 괜찮다가도, 추워지면 더욱 쑤시고 아프다. 오래 걸으면 발부터 허리까지 통증이 욱신거리기도 한다. 이러한 무지외반증도 수술하면 툭 튀어나온 부분 및 쑤시고 아픈 통증도 치료 가능하다.

여성들에게 발병 빈도 높아

오랜기간 하이힐이나 앞이 뾰족한 구두를 신는 여성들의 체중이 엄지발가락에 집중되어 발가락에 변형을 가져오기 때문에 여성들에게 무지외반증은 높은 빈도로 발생하고 있다.

무지외반증은 정상적인 발의 보행이 힘들면서 무릎과 허리에도 스트레스를 주게 된다. 그럼에도 발가락의 작은 부분이라 하여 질병이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그냥 제법한 채로 지내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이로 인해 무릎과 허리에도 심각한 문제가 생겨 고생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부산에서도 무지외반증과 지간신경종 치료 가능해

부산에서 무지외반증과 지간신경종 등의 발질환을 주로 치료하는 대한민국 정형외과 이준호 원장은 엄지발가락은 인체에서 일종의 버팀목이자 지렛대라 할 수 있는데 이기에 문제가 생기면 통증은 물론이고, 거동이 부자연스럽고 불편해지면서 자세도 비뚤어져 신체 여러부분에 질환을 앓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엄지발가락이 몸의 균형을 잡아주고 이동시키는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신체부위이기 때문이다. 그만큼 걷기에 있어 조그만 변화나 무리가 있으면 우리의 발은 신체에 즉각적인 이상신호를 보내게 된다. 엄지발가락이 휘었다고 부르는 무지외반증은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으면서도 치료를 미루나 고통만 키우는 대표적인 엄지발가락 질환으로 알려져 있다.

이제 멀리 가지 않더라도 부산에서도 무지외반증과 지간신경종 등의 발질환을 치료할 수 있다.

미니금속나사를 이용한 무지외반증 치료

상태가 심하지 않다면 보조기를 착용하거나 교정깔창을 사용해 통증을 줄일 수 있다. 하지만 변형된 정도나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로 통증이 심하다면 수술을 고려해야 한다.

최근의 무지외반증의 치료는 〈미니금속나사 교정 절골술〉을 시행한다. 부산 당감동에 위치한 대한민국 정형외과 의원도 이 수술을 시행하는데 수술 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엄지발가락 하단부위인 제1중족골 부위 한 곳을 절골해 엄지발가락의 위치를 바로잡는다. 이 때 뼈를 고정시키는 과정에서 미니금속나사가 사용되는 것이다.

수술 부위에 맞는 미니금속나사를 선택해 부착하고 위치를 잡아주는 수술을 시행한다. 미니금속나사의길이는 약 1.8cm 이내로 짧다.

이준호 원장은 "미니금속나사는 부작용이 적고, 제거하지 않아도 일반적으로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다"며 "수술 후 미니금속나사를 제거 할 필요가 없어서 2차수술이 굳이 필요없어 환자들이 선호하는 편"이라고 설명한다.

시술 시 주의할 점은 간혹 시술 후 부종이나 동통 부정유합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이준호 원장은 돌출한 뼈를 제거하는 건막류 절골술, 중족골(발등뼈)의 변형을 교정하는 시술, 발가락뼈를 교정하는 시술, 늘어난 관절낭을 탄탄하게 만드는 관절낭성형술 등 네가지 수술을 복합적으로 시행하여 재발을 걱정도 적다. 수술은 부위마취로 이루어진다.

수술 후 회복되면 목발 없이 걸을 수 있다. 재활치료 및 회복이 빠르면서도 의료보험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환자들의 부담도 덥었다.

이준호 원장은 "무지외반증이나 내향성 족지발톱은 엄지발가락에 가해지는 고통도 크지만 그 고통을 줄이기 위해 몸이 스스로 자세를 변형시키면서 균형을 흐트려서 생기는 합병증도 주의해야 한다"며 "이런 문제는 교정이나 수술을 통해 비교적 어렵지 않게 바로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고통을 참기보다는 진단과 치료를 받는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부산 대한민국 정형외과의원
문의 T.051)897-7582

※대한민국정형외과의원 홈페이지(www.대한민국정형외과.kr)를 통해 무지외반증, 지간신경종 이외에도 다양한 손과 발질환의 원인과 증상, 치료법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대한민국 정형외과 이준호 원장은 오랜 경험과 수술 노하우를 비탕으로 손질환과 발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의 효과적인 치료와 빠른 회복을 위해 수부클리닉과 족부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어, 고운손과 편안한발을 위한 치료노력에 매진하고 있다.

"은행 대출금리 내려주세요" 年 2000억 깎아

은행들이 고객들의 대출금리 인하 요구를 수용한 실적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3일 국회 정무위원회 민병두 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6월까지 국내 은행들의 대출금리 인하 요구권 수용 실적은 5만3012건에 규모상으로 21조2900억원을 기록했다. 평균금리 인하 수준은 연 1%포인트 정도로 고객들이 경감받은 이자 부담은 연간 2129억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7월 금리 인하의 요구 대상과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는 등의 지침을 은행에 내려보냈다. 이에 따라 2011년 112건 160억원에 불과했던 실적은 지난해 9945건 8000억원으로 늘어난 데 이어 올해 들어 1년도 안 돼 금액상으로 26.6배 증가했다.

금리 인하 요구권은 소득이 늘거나 신용등급이 오른 기업·개인이 은행에 대출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채신화기자

market index <1일>

지표	지수	등락
코스피	2039.42	(+5.33)
코스닥	534.74	(+2.30)
금리	2.84	(+0.02)
환율	1061.00	(+1.50)

개미 많이 산 종목 수익률 '마이너스'

외국인·기관에 또 참패

코스피 시장 훈풍 속에서 '개미'들만 또다시 피눈물을 흘린 것으로 드러났다.

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외국인과 개인이 '순매수'와 '순매도'로 맞대결을 벌인 8월 13일부터 이달 1일까지 개인투자자들의 순매수 규모 1~10위 종목 중 주가가 오른 종목은 한 개도 없다. 순매수 1위 종목인 LG디스플레이의 주가는 12.9% 떨어졌고 5위와 10위 종목인 셀트리온과 현대상선의 주가도 각각 28.3%, 37.4% 크게 하락했다.

반면 외국인 순매수 1위 종목인 삼성전자는 16.2% 상승했고, 4위 대우차는 무려 41.2%나 올랐다. SK하이닉스(2위·20.0%), 현대차(3위·11.9%), SK텔레콤(6위·12.0%), 하나금융지주(7위·12.1%)도 크게 상승했다. 외국인 순매수 상위 10개 종목 중 7개 종목 주가가 크게 올랐다.

기관 역시 집중 매수한 10개 종목 중 NHN엔터테인먼트와 현대로템을 제외한 8개 종목이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했다.

이남룡 삼성증권 연구원은 "정보력이 약한 개인은 주가가 상승하지 않았거나 최근 주가가 급락한 종목을 고르는 경향 때문에 투자에 실패한다"며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하는 종목을 선택하는 편이 현명하다"고 조언했다. /이국명기자 kim.wo@

<국민·퇴직·개인연금>

골드미스 '연금 3층탑' 쌓아라

SKT 등산로에 휴대전화 자가발전 충전기 SK텔레콤은 '행복동행' 의 실천으로 서울대 정문 쪽 관악산 입구로부터 연주대 부근 깔딱고개에 이르기까지 총 9㎞ 구간에 약 5개월 동안 '행복동행길'을 조성했다고 3일 밝혔다. 사진은 산행 중 방전으로 인한 비상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SK텔레콤이 등산로에 설치한 휴대전화 자가발전 충전기. /연합뉴스

금융계 사람들

■미래에셋은퇴연구소 김동엽

보통 여성이 남성보다 평균 7년을 더 오래 산다. 자신보다 3~4세 연상인 남자와 결혼했다고 가정하면 10년간을 남편 없는 세상에서 홀로 살아가야 한다. 결국 노후 준비는 여성 위주로 돼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이제는 여성 스스로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고 점검해야 한다.

미래에셋은퇴연구소 김동엽(사진)이사는 지난달 30일 메트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맞벌이 여성' '전업주부' '골드미스' 등 세 가지 상황에 따른 여성의 노후 준비 방법을 제시했다.

우선 '골드미스'는 노후에 자신을 부양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더욱 철저한 노후 준비가 필요하다고 김 이사는 설명했다. 골드미스의 경우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면 막대한 병원비가 발생하고 유일한 소득이 끊어질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 타격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이다.

김 이사는 "국민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 등의 3층 연금을 바탕으로 기본을 튼튼히 해야 한다"며 "더불어 의료비와 소득 상실에 대한 보험을 함께 챙기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맞벌이 여성은 본인 명의의 연금

여성 상황별 노후 준비방법
맞벌이녀 연금 수령은 늦게
전업주부 국민연금 챙겨야

자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남편과 함께 연금 맞벌이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 그는 "국민연금으로 기본적인 노후 생활비를 마련하고, 퇴직연금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추가적인 연금 흐름을 확보해야 한다"면서 "이제 홀로 보낼 10년을 대비해 연금 수령 시기를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남편 명의의 연금을 은퇴생활 초기에, 본인 명의의 연금은 은퇴생활 후반부에 수령하라는 얘기다.

마지막으로 전업주부는 국민연금을 가장 먼저 챙겨야 한다. 김 이사는 "국민연금의 경우 최소 10년은 납입해야 노후에 수령할 수 있다"면서 "직장에 다니지 않았거나 다녔더라도 10년을 채우지 못한 경우라면 임의 가입을 통해 납입 기간을 채우면 된다"고 조언했다.

/김현지기자 nina@metroseoul.co.kr

뉴스&뉴스

산후조리원 환불 쉬워진다

●앞으로 산후조리원을 예약했더라도 31일 전에 취소하면 전액 환불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3일 발표한 산후조리원 표준약관에 따르면 이용자가 입실 예정일 31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하면 계약금을 전액 환불받고, 30일 이내에 해지할 경우 잔여기간에 따라 일정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출산일이 예정일과 달라 예약 날짜에 조리원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도 계약금을 환급받거나 추가부담 없이 대체 병실을 제공받는 것도 가능해진다. 공정위의 이번 약관 개정은 산후조리원의 계약금 환불 거부와 위약금 부과 논란에 대한 민원에 따른 것이다. /장윤희기자 unique@

로또복권 제570회

1등 당첨번호						2등보너스숫자
1	12	26	27	29	33	42

등위	당첨방법	당첨금(원)
1등	6개 숫자 일치	1,527,731,625
2등	5개 숫자 + 2등 보너스 숫자	60,327,605
3등	5개 숫자 일치	1,459,800
4등	4개 숫자 일치	50,000
5등	3개숫자 일치	5,000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1-141 142
TEL. 02)721-9800 FAX 02)730-1561

발행·편집인	남궁호
사장	김주학
편집국장	조인호
부산지사장 직대	김당준
서울광고문의	02)721-9811,3
부산광고문의	051)459-2100
독자센터	02)721-9881

정·검 압박…이석채 KT회장 결국 사퇴

압수수색 등 부담 가능성 · 이르면 한달 내 후임 선출

이석채(사진) KT 회장이 3일 전격적으로 사임을 표명했다. 이 회장은 배임 혐의와 관련, 무죄를 주장하며 누누이 자진 사퇴 의사가 없음을 밝혔지만 정치권과 검찰의 전방위 압박에 결국 백기투항하는 모양새가 됐다. 이에 따라 차기 KT회장에 누가 선임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치권 검찰 전방위 압박에 '백기투항'

이석채 KT 회장은 그간 정치권과 검찰의 전방위 사퇴 공세에 직면했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기도 성남시 KT 본사와 서울 서초동 사옥, 이 회장을 포함한 임원진 자택 등 16곳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검찰은 이어 불과 열흘 만인 지난 1일 또다시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히 재무·구매 부동산 관련 부서와 2명의 임원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몇몇 임원을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에 상당한 진척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에 대한 간접적인 사퇴 압박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치권에서도 불어왔다. 유승희 민주통합당 의원은 지난달 30일 국정감사에서 이석채 회장이 무궁화 위성을 헐값에 매각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회장은 이런 전방위 압박에 견디지 못하고, 결국 전 임직원 대상의 e메일에서 사퇴 의사를 밝혔다.

▲차기 KT 회장은 누구

이석채 KT 회장의 사퇴에 따라 차기 최고경영자(CEO)로 누가 선임될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KT는 공기업에서 민간 기업으로 탈바꿈했지만, CEO의 경우 외부 입김이 작용하는 자리였다.

현재 유력한 후보군에는 관계 출신의 H씨와 K씨, KT 내부 출신인 L씨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의외의 인물이 선임될 수 있다는 분위기도 돌고 있다.

KT 전 C사장과 벤처기업 P사장 등이 그런 인물이다. C 전사장은 KT 신사업부문장 등을 역임했으며 벤처기업 대표를 담당하는 벤처 비즈니스 분야 전문가로 알려졌다.

P 대표는 광주시 소재 스마트폰용 광모듈 생산 중소업체를 설립했다.

▲차기 KT 회장 선임 절차는

KT 회장을 선출하기 위해서는 이사회와 CEO추천위원회 등을 거쳐야 한다. 빠르면 한 달 이내, 늦어도 두 달 이내에 절차가 완료될 전망이다.

우선 조만간 이사회가 소집돼 이석채 회장의 사표를 승인하는 절차를 거친다. 이후 이사회 전원과 사내이사 1명이 포함된 'CEO추천위원회'에서 차기 후보를 선정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헤드헌팅 업체를 통해 KT CEO에 대한 지원자를 받는 기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김승권 기자 ksan@metroseoul.co.kr

정용진 SSM 출점 중단한다지만…

소상공인 "실질 규제 필요"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변종 기업형 슈퍼마켓(SSM) 의혹을 받는 상품공급점 사업을 중단한다고 천명했지만, 소상공인의 반응은 여전히 싸늘한 것으로 드러났다. SSM 이후 상품공급점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은 정부의 실질적인 규제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정용진 부회장은 지난 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 나와 "소비자가 상품공급점을 이마트로 오해할 수 있는 간판 부착, 유니폼 지원, 경영 지도를 대행해주는 변종 SSM 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발언했다.

그러나 한 슈퍼마켓협동조합 이사장은 "상품공급점이 대기업 간판을 달고 장사하는 것보다 일반 슈퍼에 비해 저가에 물건을 공급받는 것이 더 큰 문제"라며 "상품공급점이 늘어 슈퍼들이 조합에서 사는 물량이 줄었다"고 토로했다.

대기업이 상품공급점에 계속 물건을 낮은 가격에 공급하면 상품공급점에 가입하지 않은 슈퍼들은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또 이들은 물건을 공동 구매해 회원 슈퍼에 공급하는 지역 슈퍼마켓협동조합과 중소 도매상은 대기업이 상품공급점을 통해 도매사업에 진출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여기에 신세계그룹이 지난 2010년 5월 중소 슈퍼마켓의 가격 경쟁력 향상을 위해 이마트가 슈퍼마켓조합이나 체인본부를 통해 상품을 공급하는 업무협약을 중소기업청 등과 체결했지만, 이를 파기하고 상품공급점 사업을 시작했었던 이력도 소상공인들이 정부의 규제를 요구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다.

중소기업청도 이 같은 문제를 인식해 상품공급점 확대로 소상공인이 당한 피해에 대한 실태 조사와 함께 연내 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대책을 마련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염용을 기자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지난 1일 국정감사에서 변종 기업형 슈퍼마켓(SSM) 의혹을 받는 상품공급점 사업을 중단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지만 이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SSM 이후에 상품공급점으로 다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은 대기업의 '공약(空約)'이 아닌 정부의 실질적인 규제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사진은 3일 서울의 한 이마트 에브리데이 상품공급점. /연합뉴스

경상수지 흑자 일본 앞지른다

한국 올해 첫 역전 전망

올해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폭이 수출 대국 일본을 처음으로 앞지를 것으로 예상된다.

3일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한국의 경상흑자는 총 422억2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반면 일본의 경상수지 흑자폭은 같은 기간 415억3000만 달러로 한국보다 약 7억 달러가 적다.

연중 누계 기준으로 한국이 일본을 앞선 것은 통계가 시작된 1980년 이후 처음이다. 연간 기준으로 따져도 한국이 630억 달러, 일본이 601억 달러로 올해 첫 역전이 전망된다.

일본의 경제 규모는 한국의 약 6배로, 일본의 경상흑자는 2008년만 해도 1593억 달러로 32억 달러인 한국의 50배 수준이었다. 하지만 일본의 흑자폭은 2011년 접어들면서 1190억 달러 선으로 줄었고 지난해에는 604억 달러로 급감했다.

한은 관계자는 "지난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에너지 수입이 대폭 늘어난 데다 일본의 전자기업들이 세계시장에서 한국에 추격당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말 이후 엔화 가치가 40% 절하돼 경상수지의 달러 환산액이 줄어든 것도 또 다른 이유 중 하나다.

한편 같은 기간 한국의 흑자폭은 휴대전화, 자동차 등의 수출 호조로 293억9000만 달러에서 260억7000만 달러, 431억6000만 달러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송민 기자

'목돈 안드는 전세' 첫 실적

한달만에 2건 기록

정부의 대표적인 렌트푸어 대책인 집주인 담보대출 방식의 '목돈 안 드는 전세 I' 실적이 처음으로 나왔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대구와 대전에서 '목돈 안 드는 드림전세' 2건이 진행됐다.

대구의 한 아파트는 집주인이 보증금 7000만원을 8000만원으로 1000만원 올려줄 것을 요청했지만 세입자가 증액을 해주지 못하자 집주인이 이 제도를 활용해 대출을 받았다. 집주인이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해 대출을 받아 대출금리는 전세자금 대출에 비해 현저히 낮은 연 3.93% 수준으로 책정됐다. 이에 따라 세입자가 납부해야 할 월 이자 부담은 3만3400원이었다. 이는 신용대출보다 이자가 최소 연 1~2%포인트 낮은 것이다.

대전의 단독주택은 임차보증금을 1300만원에서 1700만원으로 400만원 증액한 액수만큼 대출이 이뤄졌다. 대출금리는 연 4.13%(6개월 변동)이며 세입자는 월 이자 1만4000원을 부담하도록 했다.

목돈 안 드는 전세는 렌트푸어 대책으로 대선 공약에 등장했다. 집주인 담보대출 방식인 목돈 안 드는 전세 I 과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 방식인 목돈 안 드는 전세II로 나뉜다. 목돈 안 드는 전세II는 출시 2개월여 만에 186건, 120억7000만원이 계약된 반면 목돈 안 드는 전세 I 은 한 달이 지나도록 실적이 없어 실효성 논란이 일었다. /김민지기자 minji@

"고령층 소비둔화 뚜렷"

우리나라 고령층이 교육비와 집값 부담으로 노후 대비를 적절히 못해 소비력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3일 LG경제연구원의 '노후 대비 부족한 고령층 소비할 여력이 없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대 들어 60대 이상 고령층의 소비 둔화 현상이 두드러졌다.

지난해 60·70대 가구의 소비 성향은 지난 2006년에 비해 각각 5.9%포인트, 6.8%포인트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30대는 1.6%포인트 증가했다.

보고서는 1990년대 이후 대학 진학률이 높아지면서 자녀 교육비 부담 증가로 고령층이 충분한 노후 준비를 하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이 때문에 고령층의 낮은 소비 성향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조슬기기자 unique@

오바마 "삼성처럼 美에 베팅하라" … 국내 정치권 "게임은 악" 관련산업 위기

일자리 만드는 美, 걷어차는 韓

"한국의 삼성전자처럼 미국에 투자하세요."

버락 오바마(사진) 미국 대통령의 이같이 언급해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간)부터 이틀간 워싱턴DC에서 열린 '미국 선택 2013 투자 서밋'에서 연사로 나선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에 베팅(투자)하면 반드시 성공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바마 대통령은 특히 '자존심'을 걸고 "삼성전자는 오스틴 공장을 확장하기 위해 40억 달러(약 4조2400억원)를 투자하는 등 미국에서 성공할 것을 확신하고 있다"며 외국인 투자 유치의 모범 사례로 삼성전자의 텍사스 오스틴 반도체 공장을 직접 거론했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스마트폰 특허 전쟁에서 일방적으로 애플 편을 들었던 모습과는 판이하게 달라 눈길을 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달 8일 갤럭시S2 등 삼성전자 스마트폰 제품의 미국 내 수입금지 조치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이보다 앞서 지난 8월 애플의 구형 제품에 대해서는 삼성의 '표준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ITC(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의 수입금지 조치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런 오락가락 행보 때문에 전 세계 언론으로부터 '이중 잣대'를 지녔다는 비판을 받았을 정도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오바마 대통령의 행동에 일관성이 없는 것이 결코 아니다. 철저히 자국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는지에 따라 판단을 달리했을 뿐이다.

최근 한국 게임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게임을 술과 도박, 마약과 함께 4대 중독 물질로 지정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달 초 취임한 여당인 새누리당의 황우여 대표가 "알코올·마약·도박·게임 중독에서 괴로워 몸부림치는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이 사회를 악에서 구해야 한다"고 말한 국회 연설은 국내 게임업계 종사자들을 좌절로 몰아넣고 있다. 한 게임업계 대표는 "마약상과 같은 취급을 받느니 회사를 국외로나 옮기자"고 트위터에 글을 남겼을 정도다.

지난해 국내 게임 시장의 규모는 9조7525억원으로 빅 마켓에 속하는 화장품 시장과 비슷한 수준이다. 게임 산업 종사자는 9만5015명(2011년 기준)으로 음악(7만6181명)은 물론 방송(3만8366명), 광고(3만4647명), 영화(2만9569명) 산업 종사자를 합친 것보다 많다.

시대의 흐름을 좇아가지 못하는 국내 정치권이 시장 규모로나 일자리 측면에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산업을 고사시킬 위기에 빠뜨리고 있는 셈이다.

일자리 창출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오바마 대통령이 국내에서 벌어지는 이 같은 상황을 알게 된다면 어떻게 할까. "한국의 게임업체들은 기회의 땅 미국으로 오라"는 유혹의 손길을 보내기 위해 벌써 준비를 서두르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이국명기자 kmlee@metroseoul.co.kr

"퇴직하면 음식·숙박업"

제조업 등 고부가가치 산업에서 일하던 근로자들이 퇴직 후 음식·숙박업으로 이동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한국은행 조사국 이은석·박창현·이세준 과장과 김주영 조사역 연구진이 발표한 '산업 간 노동 이동성 분석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저부가가치 서비스업으로 이직한 노동자의 52.8%는 제조업·고부가 서비스업과 같이 더 나은 부문 등에서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비율은 2003년(40.4%)보다 13.5%포인트나 커진 것이다.

연구진은 "지난 10년간 저부가 서비스업 근로자가 해당 업에 머무는 비율(75.5%)도 고부가 서비스업(46%), 제조업(63%)보다 높다"며 "노동 이동이 생계 유지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진입 장벽이 낮은 산업으로 이뤄져 저부가 서비스업의 과잉화, 경제 전체의 노동 생산성 저하 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산업 간 생산성 불균형이나 근로자 간 임금격차 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더 나은 월급, 근속 연수, 근무 여건을 위한 상향 이동이 늘어나야 한다.

연구진은 "저부가 서비스업 근로자에게 직업 재교육을 제공해야 한다"며 "노동 시장을 유연화하고 산업 융·복합화로 서비스업의 생산성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국명기자

겨울 패딩 3만9000원부터 홈플러스는 플로렌스&프레드(Florence&Fred) 겨울 의류를 시중가 대비 40% 이상 저렴하게 출시해 겨울 패딩 남성용은 3만9000원부터, 여성용은 4만9000원부터 판매한다고 3일 밝혔다. /홈플러스 제공

현대상조 대학생 서포터스와 캠페인

국내 1위 상조기업 현대종합상조㈜프리드(회장 박헌준)가 올바른 상조 문화 정착과 확산을 위해 참여형 캠페인을 펼쳐 눈길을 끌었다.

지난 1일 서울 종로와 인사동 일대에서 현대종합상조 프리드 대학생 서포터스 '프리터'가 함께한 '1등이니까, 프리드니까!' 캠페인은 '생애 최고의 순간'을 주제로 시민 투표 참여 방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날, 생애 최고의 순간을 위해 미리 준비해야 할 것 이라는 질문에 총 700여 명의 참가자 중 42%(294명)가 '추억을 위한 여행', 33%(231명)는 '연인과의 결혼'이라고 답했다. 한편 25%(175명)에 달하는 응답자가 '갑작스러운 죽음을 대비하기 위한 상조 가입'을 택했다.

'폰' 휘어야 산다!

삼성 이어 LG도 신제품 발표… 2020년까지 수요 200배 늘듯

"더욱 휘게 하라." 플렉서블(flexible) 제품이 차세대 시장으로 떠오르면서 IT업계에 새로운 특명이 내려졌다.

3일 시장조사업체 IHS에 따르면 휘는 스크린 수요는 올해 320만 장에서 2020년에는 7억 9200만 장으로 200배 이상 커질 전망이다.

휘어진 스마트폰 전쟁은 이미 예고됐다. 삼성전자는 '갤럭시라운드'를 선보였으며 LG전자는 5일 'G플렉스'를 발표할 예정이다. 양사는 인체 공학 기술력을 지닌 이 제품이 손에 쥘 때나 동영상을 감상할 때 편리하다고 강조한다. 특이 사항은 갤럭시라운드와 G플렉스의 휘어진 방향이 정반대란 점이다. 갤럭시라운드는 좌우, G플렉스는 위아래로 휘었다.

삼성전자 갤럭시라운드는 세계 최초의 휘어진 스마트폰을 내세우며 LG전자는 휘어진 배터리 탑재 기술을 강조한다. G플렉스의 경우 스마트폰을 바닥에 놓고 누르면 휜

부분이 어느 정도 펴진다. 두 제품 각각 5.7인치, 6인치 대화면이지만 휘어짐으로써 손가락이 움직이는 범위를 좁혔다.

지난 1일에는 국내 연구진이 휘는 메모리를 세계 최초로 개발하기도 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이 개발한 이 메모리는 휘어지거나 비틀어져도 데이터 저장과 삭제를 정확하게 처리한다. 이 기술은 저명한 국제 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에도 소개됐다.

KIST 연구진은 "휘어지는 제품 기술에 대한 연구가 늘어나고 있다"면서 "이번 개발로 휘는 스마트폰 등의 연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장윤희기자 unique@metroseoul.co.kr

창단 2주년 맞은 롯데마트 '행복드림 봉사단' 롯데마트 행복드림 봉사단원들이 3일 롯데마트 서울역점에서 아동보육시설 꿈나무들과 함께 창단 2주년 행사를 진행하며 떡을 자르고 있다. 행복드림 봉사단은 롯데마트 점포와 본사 등 총 115개 봉사단으로 구성, 전국 115곳의 아동보육시설을 지원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자소재도 글로벌 1위 꿈꾸는 삼성

수원에 연구단지 오픈

삼성그룹이 5일 삼성전자 수원사업장에 '삼성 전자소재 연구단지'의 오픈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소재 분야에서 본격적인 연구 개발을 통해 글로벌 1위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이 연구단지는 삼성전자·삼성SDI·제일모직·삼성정밀화학·삼성코닝정밀소재 등 5개사가 공동으로 투자했다. 그러나 최근 삼성디스플레이가 삼성코닝정밀소재의 지분 전부를 매각해 이를 제외한 나머지 4개사의 연구원들만 입주할 전망이다.

이 연구단지는 완제품이나 부품이 아닌 '소재'를 전문적으로 연구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TV·휴대전화·반도체 등에 비해 뒤처진 '소재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춘다는 계획이다.

이 경우 완제품·부품·소재로 이어지는 전 분야에서 글로벌 1위를 달성할 수 있어, 전자소재 연구단지가 이를 위한 전초기지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제일모직이 고효율 올레드용 소재 핵심기술 특허를 보유한 독일의 노바엘이디를 인수한 바 있고, 삼성디스플레이의 삼성코닝정밀소재 지분 매각 등도 소재 분야를 육성하기 위한 일환으로 알려졌다. /김태균기자 kant@

'페이핀' 가입자 100만명 돌파

SK플래닛은 초간편 결제 서비스 '페이핀(paypin)' 가입자가 100만 명을 돌파했다고 3일 밝혔다.

페이핀은 신용카드와 휴대전화 결제 등 여러 결제 수단들을 페이핀 애플리케이션에 등록해 간단한 비밀번호 하나만으로 편리하게 결제를 진행할 수 있는 모바일 간편 결제 서비스다.

페이핀은 최근 두 달 동안 월 15만 명 이상 신규 가입자가 증가하는 등 9월 기준으로 상반기 평균 대비 월 이용 고객 4배 이상, 거래액 2배 이상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재영기자

제로백 5.1초…더 튼튼해진 놈

드림카 탐구 아우디 SQ5

독일 삼총사로 통하는 BMW 벤츠 아우디는 프리미엄 브랜드임에도 각각 한 레벨 위의 브랜드를 가지고 있다. BMW의 M, 벤츠의 AMG, 아우디의 S가 주인공이다.

엔진 성능을 크게 높이면서 디자인을 스포티하게 꾸민 것이 특징인데 역시나 가격이 비싸다.

SQ5는 아우디의 중형 세단 Q5의 고성능 버전이다. 차고가 30㎜ 낮아졌고 휠이 21인치로 커졌다. Q5와 비교해서 살짝 작아졌지만 하체가 더욱 튼실해졌다.

그럼에도 크류 디자인이 눈에 띄는 전면 그릴과 S 로고를 제외하면 Q5와 큰 차이는 없다. 그렇다면 동력 성능은 어떨까.

3.0 트윈터보 디젤 엔진이 내는 힘은 313마력, 최대 토크 66.3kg·m로 괴물 급이다. 특히 순간 속도를 나타내는 토크는 암선사 가운데서도 손에 꼽을 정도로 막강해 2t에 가까운 덩치에도 제로백은 5.1초에 불과하다.

그런데 변속기를 'D'모드로 세팅했을 때는 Q5와 큰 차이를 느끼기 어려웠다. 물론 S모드로 바꾸면 언제 그랬냐는 듯 제원에 걸맞은 성능을 자랑한다.

문제는 11.9㎞/ℓ인 연비가 극심하게 떨어진다는 점인데 8650만원짜리 차를 사는 사람이라면 이 부분을 달리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Q5 최고급 모델보다 1000만원 이상 비싼 것도 소비자의 판단에 맡길 일이다.

/박성훈기자 zzz@

현대·기아차 '후진' 한국GM·쌍용차 '전진'

국내 車업계 10월 내수판매

HYUNDAI
CHEVROLET

국내 완성차 업계의 내수 판매가 극명한 대조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완성차 업체들이 발표한 실적에 따르면, 현대차와 기아차는 10월 내수 실적이 지난해보다 크게 떨어졌다. 올해 누적 판매에서도 두 업체는 모두 전년 대비 마이너스 실적을 기록했다.

현대차는 10월 내수 시장에서 5만7553대를 판매해 전년 동월 대비 6.4%포인트의 감소율을 보였다. 올해 10월까지 누적 판매도 1.2%포인트 감소했으며, 특히 승용차 부문은 10.3%포인트가 줄었다.

기아차는 10월 판매가 전년 동월 대비 3.9%포인트 줄었고 10월까지 누적 판매는 5.6%포인트 감소했다. 기아차도 현대차와 마찬가지로 승용 부문의 부진이 심각해 전년 동기 대비 9.8%포인트나 줄었다.

이들 업체의 공통점은 뚜렷한 히트 모델 없이 대부분의 모델이 심각한 판매 부진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현대차는 에쿠스가 10월까지 1만1190대가 팔리면서 36.8%포인트 증가했고 그랜저는 7만4919대로 3.0%포인트 증가한 반면, 그 외의 승용차는 모두 감소세를 보였다. 특히 현대차가 마케팅에 집중하고 있는 PYL 라인업인 i30와 i40, 벨로스터는 33.8~39.1%포인트가 감소해 현대차를 당혹스럽게 하고 있다.

기아차는 K3(275.8%포인트 ↑)와 K7(68.3%포인트 ↑)을 제외한 나머지 승용차가 모두 판매 부진에 빠졌다. 현대차는 투싼ix와 싼타페, 맥스크루즈의 판매가 늘었고 기아차는 신형 카렌스와 카니발, 모하비의 판매가 전년 대비 증가했으나 전체적인 실적 부진을 만회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와 대조적으로 한국GM과 쌍용차의 실적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한국GM은 승용 부문에서 큰 폭의 감소세를 나타냈지만 캡티바의 판매가 늘어난 데다 트랙스가 가세하면서 RV 판매가 43.9%포인트 늘어났다. 덕분에 전체 내수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1.2%포인트 증가했다.

르노삼성은 SM7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줄었을 뿐 SM3와 QM5는 판매가 소폭 증가했다. 덕분에 어려운 회사 사정에도 불구하고 10월까지 내수 판매가 3.2%포인트 감소에 그쳤다.

쌍용차는 10월에 1만4244대가 팔리면서 2005년 이후 월 최다 판매 기록을 경신했다. 코란도C를 비롯해 코란도 투리스모, 코란도 스포츠, 렉스턴이 모두 큰 폭의 증가율을 나타낸 덕분이다. 이에 따라 10월까지 누적 판매는 전년 대비 34%포인트의 증가를 기록하고 있다.

/정영택기자 ferrari@metroseoul.co.kr

DOOSAN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모두가 힘들 것이라 할 때
용기와 희망을 안고 뛸 수 있게
한결 같은 믿음과 사랑을 보내주신
팬 여러분이 있었음에도
우승의 결실을 맺지 못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도
끈기와 근성만 있다면
해낼 수 있다는 것을
팬 여러분의 믿음과
사랑을 통해 배웠습니다

내년에는 더 멋진 모습으로
팬 여러분의 성원에
반드시 보답하겠습니다

<오바일 게임>

TV속으로 들어온 '마이턴'

월드맵 초대형 세트 구현 문화체험등 새 요소 추가 tvN 오늘 첫방송 '기대'

모바일게임의 TV 프로그램화가 국내에서 처음 시도된다.

인기 스마트폰 게임을 실사판으로 구현한 tvN 게임 버라이어티 '백만장자 게임 마이턴'이 4일 오후 11시 첫 방송된다.

기본적인 플레이 방식은 스마트폰 게임과 동일하다. 두 개의 주사위를 던져 숫자가 나온 만큼 칸을 이동하고, 팀별로 지급된 돈(원)으로 나라를 구매할 수 있다. 빌라, 빌딩, 호텔, 랜드마크 순으로 건설이 가능하며 상대팀 나라에 도착했을 경우 통행료를 지불해야 한다.

이번 프로그램 제작을 위해 제작진은 게임 속 보드판인 월드맵을 350평 규모의 초대형 세트로 현실에 구현했다.

스마트폰 게임에는 없었던 새로운 요소도 추가해 예능적 재미를 높인다. 나라별 가상 전쟁인 문화를 벌칙으로 체험하는 '문화체험', 체육 경기를 통해 찬스를 획득하는 '올림픽 존' 등이 추가됐다.

3명이 한 팀을 이뤄 게임을 진행하고, 우승팀은 다음 판에 도전할지를 선택한다. 상금은 1승 100만원, 2연승 300만원, 3연승 1000만원으로 증가하며 최종적으로 7연승을 거둘 경우 5000만원을 받는다.

1회에는 정준하팀, 이수근팀, 전현무팀, 마이턴팀 등 총 4개 팀이 대결을 펼친다. MC는 전현무와 이수근이 맡았고, 인기 게임 캐스터 정준하가 보조 MC로 활약한다.

문희현 PD는 "국민 스마트폰 게임을 인기 스타들이 현실에서 직접 체험하는 모습이 유쾌한 웃음을 자아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진영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신한금융그룹

내 생애 첫 집!

내 집 마련의 꿈, 국민주택기금과 신한은행이 함께 합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대출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무주택 서민을 위하여 국민주택기금으로 지원하는 저금리 주택담보 대출 상품입니다

- **대출대상자** • 신청일 현재 만20세 이상인 무주택 세대주 (만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제외)
  • 부부합산 연소득이 최근년도 또는 최근 1년간 7천만원 이하인 분
- **대상주택**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
- **대출한도** 담보가액 범위내에서 **최고 2억원 이내**
- **대출금리** **연 2.6** ~ 3.4 % (변동금리)
  소득금액, 대출기간 등에 따른 차등금리 적용
  - 금리우대 : 다자녀가구 0.5% 우대, 다문화 또는 장애인 가구 0.2% 우대
  - 대출기간 30년 선택시 0.1% 가산
- **대출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원리금 또는 원금 균등분할상환 (선택가능)
  - 대출기간 30년 선택은 만45세 이하인 분만 가능
-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더 나은 내일을 위한 동행 신한은행

신한금융그룹 | 신한카드 | 신한금융투자 | 신한생명 | 신한BNP파리바 자산운용 | 신한캐피탈 | 제주은행 | 신한저축은행 | 신한데이타시스템 | 신한아이타스 | 신한신용정보 | 신한PE투자자문

그녀들의 잘난 연애

임경선의 모놀로그

"전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대학 나와 좋은 직장을 다니고 솔직히 외모나 성격도 나쁘지 않은 편이에요. 그런데 전 여전히 싱글이에요. 대체 뭐가 문제인 거죠?" "왜 나한테 다가오는 남자들은 나보다 못난 남자들이고 내가 좋아하는 괜찮은 남자들은 나를 안 좋아하는 걸까요?" 객관적으로 나름 잘났다고 자신을 소개하는 여자들이 내게 강연에서 던지는 하심탄회한 질문들이다.

여러 가설이 있다. 잘난 남자들이 상대적으로 적어졌다는 불균형 설, 그녀들이 너무 자기 계발에 힘쓰는 나머지 되레 사람 만날 기회가 없어진 '유통기한' 설, 혹은 남자들이 여자에게 바라는 것은 더 필요 없고 그저 예쁜 거라는 '남자본성' 설. 다 조금씩 일리가 있겠지만 똑똑한 그녀들이 괜찮은 관계를 못 맺는 이유는 뭣똑똑이처럼 자기 생각에 집착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개개인이 생각하는 '연애나 결혼은 이러저러해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기준이 스스로를 구속하고 그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이성에게 실망하면서 놓치는 기회가 얼마나 많을까. 그것도 모범생으로 성장하면서 주변에서 주입식으로 받는 기준이 아닐까. 즉 여자인 나보다는 조금은 더 잘난 남자. 그것이 바로 남녀 간 옳은 조합인 양.

문제는 어지간히 유능하고 똑똑한 여자라면 자기보다 더 잘나고 강한 남자를 만난다 해도 그 유능함 탓에 상대의 부족한 부분이 바로 눈에 보인다는 것이다. 그리고 덮심히 살아온 습성 때문에 상대의 단점처럼 느껴지는 그것을 고치려 할 것이고 자존심 강한 남자는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지니 갈등은 피할 수가 없다.

즉 남자의 완벽함을 기대하지만 그런 완벽한 남자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센 것처럼 보이는 남자는 자신의 유약함을 애써 감추려는 것뿐이다. 눈을 낮추라는 얘기가 아니다. 잘남과 못남의 기준이 획일적이고 타인의 기준이 아닌지 의심해보자는 것이다.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면 더 이상 나의 '잘남'은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게 사람이다.

/칼럼니스트

SUDOKU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 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1		6		5		
	6			9			3	
		3	8		5	6		
5		6				8		3
		8	2		6	4		
	5			2			6	
	7	4				1	2	
	3		9		1		4	

		7	1		8	6		
				2				
2			6	9	5			3
4		2	3		6	5		1
	3	8				7	6	
5		6	9		4	8		2
6			5	3	2			7
				6				
		5	8		9	3		

스도쿠 정답

[illegible]

문제제공 - 첫뉴스
(주)스도쿠히스타 (개발러 히다 리미티드 제공)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8877
www.saju4000.com

특별할 것 없는 내상 무미건조해 대인관계 중심 잡으면 일생 행복

너모비스 82년 7월 27일 뮈력 오후 3시

Q 메트로신문을 보면서 출근하는 직장인입니다. 제가 앞으로도 현재 다니는 직장에서 계속 이 일을 할 수 있을지 제 미래는 어떤지 문의드립니다. 전 독신을 고집하지도 않는데 인연을 만나기가 쉽지 않네요. 삶이 재미없는 저에게도 좋은 일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A '사주 속으로' 코너에 상담 신청 시에 성별 구분을 하고 상담을 의뢰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귀하는 도세주옥(陶洗珠玉)의 상인데 이는 지혜롭고 예술이다 문학 방면에 조예가 깊음을 의미합니다. 정확하며 절도가 있고 주변의 도움을 받는 일이 많고 어느 분야에서든 인정을 받습니다. 단 조직에서 좋을 잘못 서서 유시무종(有始無終)하고 지모자괴(智謀自壞)할 수도 있으니 한쪽으로 치우치는 대인관계를 만들지 않으면 될 것입니다. 자긍심을 갖고 매진하십시오. 좋은 배우자와 인연을 맺고 평생이 행복한 상이지만 남녀 공히 결혼 후에 이성의 시선이 따르다 이성 문제에서는 수양이 살이 필요합니다. 좋은 일은 덕이 두텁고 자손이 번창한다는 길명입니다.

"전자와 동업" 말년운 따라줄까 재물다툼 있으니 지금 중단을

hynin 남자 48년 9월 29일 뮈력 오후 8시

Q 노력입니다. 노고에 감사드리며 더욱 발전하기를 기원드립니다.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친환경적인 제품을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전자들과 동업해 시작하려는데 확신이 가는 시점이지만 제 사주팔자에 사업운이 말년에 있는지 봐주십시오. 하명을 따르겠습니다.

A 한낮에 태양'인 병화일간(丙火日干) 사주입니다. 좌우에 정화(丁火)가 자리를 하고 있으며 유금(酉金)인 재물이 천을귀인(귀인이 도움)으로 모아놓은 재물이 많습니다. 올해 재물운이 들어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고 싶겠으나 2014년 1월부터 군겁쟁재(群劫爭財) 여러 무리가 재물을 놓고 다툼하여 사업은 남에게 사기를 당하고 원살(怨殺)을 맞아 관재까지 겪게 됩니다. 이미 돈이 얼부라도 건너갔다면 그것으로 마무리를 하십시오. 2013 계사(癸巳)년에 화(火)극 금(金)되어 유금(酉金)인 재물이 녹아내는 형국이므로 다소의 손실로 마무리하시고 현금 투자보다는 문서에 묻어놓도록 하여 다시 상담 신청하세요.

자신의 사주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를 클릭해 상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신점[神占] 운세 11월 4일 (음 10월 2일) 김작수 인생상담

48년생 지난 잘못은 따끔하게 지적할 것. **60년생** 예상보다 결과가 좋게 나온다. **72년생** 변수가 많으니 준비된 쪽은 기대치 낮춰라. **84년생** 맘의 결실은 달콤하다.

49년생 듣기만 해도 유쾌한 낭보 날아든다. **61년생** 희망이 안 보이는 일은 포기할 것. **73년생** 가뭄에 단비가 내린다. **85년생** 멀리 보는 것도 좋지만 발등의 불부터 꺼라.

50년생 술자리서 구설수 조심~. **62년생** 눈치 보며 한 일에 박수가 쏟아진다. **74년생** 투자나 문서 일은 다말을 기억하라. **86년생** 정보 너무 믿으면 화근이 된다.

51년생 큰 것보단 작은 것에 승패가 갈린다. **63년생** 경쟁은 으면 딴 생각은 하지 마라. **75년생** 자신감이 지나치면 엉뚱한 실수한다. **87년생** 목적이 불분명한 모임은 멀리하라.

52년생 독선자기 단았던 마음을 열어 이뤄~. **64년생** 진심이 없는 제안은 외면당한다. **76년생** 오늘보단 내일을 생각할 것. **88년생** 가슴 뛰는 이성과 마주한다.

53년생 주머니가 넉넉하니 자신감 넘친다. **65년생** 극주가 무가 없는 곳은 발길 멀리할 것. **77년생** 아랫이 이끄는 내로 움직이면 좋다. **89년생** 같은 실수 않도록 조심~.

42년생 대의를 위해선 적당한 거짓말 필요~. **54년생** 포장이 지나치면 진실도 의심받는다. **66년생** 좋은 일에 이름이 거론되어 이름~. **78년생** 자신감이 과하면 남제 본다.

43년생 귀인이 수고를 덜어준다. **55년생** 부질없는 일에 에너지 낭비 마라. **67년생** 배짱이 있어야 얻는 게 많다. **79년생** 소문이나 정보는 눈으로 확인할 것.

44년생 고할업지는 딱 꼭 챙겨라. **56년생** 일을 잘해서 천냥 빚을 갚는 격이다. **68년생** 입은 닫고 귀동냥에 신경 써라. **80년생** 귀인이게 권은 자식이 힘을 실어준다.

45년생 결단을 명쾌하게 할 인연 만난다. **57년생** 적시에 쓸 수 없는 물건은 구입 마라. **69년생** 하룻밤 재미에 지갑 털면 후회한다. **81년생** 잘 부딪치는 직로는 피해가라.

46년생 이도 저도 아닌 처지가 슬프구나. **58년생** 수고한 만큼 지갑은 두둑해진다. **70년생** 인연이 아닌 일에 매달리지 마라. **82년생** 가뭄에 단비가 내린 격이다.

47년생 듣기만 해도 배부른 소식 당도한다. **59년생** 계약은 극적으로 성사될 듯. **71년생** 우연히 다가온 기회가 큰 행운을 안긴다. **83년생** 남의 일에 끼어들면 심신만 지곤~.

록에 도전 나만의 색 더 담았죠

첫 솔로 발표하고 아시아 투어 김재중

'JYJ'의 김재중(27)이 데뷔 10년 만에 가장 행복한 순간을 맞았다. 아이돌 그룹 멤버로 최정상에 오른 그는 올해 로커로 변신해 첫 솔로 앨범을 냈다. 그리고 9개월 만에 첫 솔로 정규앨범 'WWW'(후 웬 와이)를 발표하고 변화와 도전을 완성시켰다.

◆앨범 주제 '사랑의 시작과 끝'

솔로 앨범에서 록을 고집하는 이유는 자신의 음악 세계에 대한 의지와 도전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다.

"어릴 때부터 좋아하던 장르예요. 전문적으로 서도하기에는 우리가 있을 거라는 고민도 했었죠. 음악을 듣는 자유는 있지만 말 자유는 말지 않다는 말도 있잖아요."

이런 고민에도 회치를 규하지 않았다. 처음 발표한 미니앨범이 도전 정신의 표현이라면 이번 정규앨범은 확실한 음악 세계를 보여준다. "지난 앨범에는 김바다 선배님의 영향을 받았다면 이번에는 저만의 색깔을 좀 더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이번 앨범의 제목은 사랑을 주제로 그 시작과 끝을 의미한다.

"사랑을 하려면 누구와 어떤 곳에서 왜 사랑을 할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세 단어를 조합해 'WWW'라는 앨범명이 나왔어요."

앨범에는 거친 사운드와 팝 멜로디가 어우러진 타이틀곡 '저스트 어나더 걸'을 비롯해 일본 유명 밴드 글레이의 다쿠로가 선물한 J-록 '모닝 비트', 윤도현이 만든 '니우 히즈 굿' 등 13곡이 담겼다.

타이틀곡 '저스트 어나더 걸' 거찬 사운드+팝 멜로디 조화

데뷔 10년차 새 자극제 필요 또다른 성장통 겪어야 행복

"록이 꼭 헤비하고 하드한 것만은 아니에요. 부드러운 멜로디의 발라드 등 록적인 요소가 들어간 가벼운 곡들도 앨범에 들어있죠."

이번 앨범은 발매와 동시에 일본·대만·태국·말레이시아·필리핀·싱가포르 등 12개국 아이튠즈 차트에서 정상에 올랐다. 정상급 한류스타로서 변함없는 인기를 확인한 것이자 음악적 변신에 대해 해외 팬들도 호평을 나타낸 것이다.

"모르는 나라에서도 제 노래가 상위권에 올라 깜짝 놀랐어요. 다른 장르에 비해 록은 세계적인 관심과 사랑을 받곤 하죠. 그래서 김재중이라는 존재는 모르던 분들도 '새로운 음악이 나왔구나' 하고 관심을 가져주는 것 같아요."

◆내 자신 '1'로 놓고 다시 스타트

2004년 동방신기 멤버로 데뷔해 JYJ 멤버, 솔로 가수, 배우 등으로 다양한 활동을 해온 그는 데뷔 10주년을 앞두고 새로운 목표를 세웠다.

"10년간 목표로 해온 것들을 이루려다가 막상 10주년을 앞두니 모든 것을 리턴하게 돼요. 아무것도 모르던 때를 1로 본다면 저 자신을 1로 놓고 다시 시작해보고 싶어요. 1로 돌아간다는 것은 초심으로 다시 시작한다는 뜻도 있지만 새로운 목표를 다시 세운다는 의미가 커요."

그는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을 하며 새로운 자극제가 필요했다"며 "나 같은 경우 더는 성장통을 느끼지 못할 때가 가장 힘든 시기다.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또 다른 성장통을 겪으며 좋은 음악을 들려줄 때 행복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1집 발매를 기념해 '김재중 1st 앨범 아시아 투어 콘서트'에 돌입한 그는 2~3일 고척스에서 화려한 막을 열었다. 15~16일 일본 요코하마, 23일 대만 타이베이, 다음달 7일 중국 난징에서 투어를 이어간다.

/유순호기자 suno@metroseoul.co.kr 디자인/이은지

star bag

콘서트에 2만4000명 몰려

3인조 밴드 **버스커버스커**가 두 번째 콘서트를 열고 총 2만4000여 명의 관객과 교감했다. 1~2일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삼성카드 셀렉트 18 : 2013 버스커버스커'의 서울 공연이 열렸다. 지난달 대구와 부산 공연을 마친 버스커버스커는 이날 장장 3시간에 걸쳐 최근 발표한 2집 수록곡과 '엠넷 슈퍼스타K 3' 경연곡을 포함해 총 33곡을 불렀다.

외제차 절도 패러디 논란

개그맨 **곽한구**가 케이블 채널 tvN 'SNL 코리아'에서 셀프 디스를 해 논란을 일으켰다.

2일 방송된 'SNL 게임즈-GTA 강남' 코너에서는 과거 외제차 절도로 물의를 빚은 곽한구가 벨레파킹 요원으로 출연, 다른 사람의 외제차를 타고 달아나는 모습이 희화화돼 방영돼 논란이 일었다. tvN 측은 "범죄를 옹호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오종혁과 열애 알려지 두근'

티아라 **소연**이 연인 오종혁을 방송에서 언급해 화제다.

그는 3일 방영된 SBS '도전 천곡'에서 두 사람의 열애가 알려졌을 때의 심경을 묻는 MC 이휘재의 질문에 답변하며 "많이 떨렸다"고 답변해 눈길을 끌었다. 소연과 오종혁은 3년간 교제한 사실을 9월 공개한 바 있다.

'디셈버' 티켓 4만석 매진

JYJ **김준수**가 다음달 16일 개막할 뮤지컬 '디셈버'의 티켓 4만 석을 순식간에 매진시켰다.

소속사는 "1일 진행된 1차 티켓 오픈에서 김준수가 출연하는 회차분의 티켓이 90% 팔려나갔다"면서 "이날 오후 8시부터 약 1시간 30분가량 12만여 명이 동시 접속해 서버가 마비되기도 했다"고 밝혔다.

MBC '무한도전' 2013 자유로 가요제'의 한 장면. MBC 제공

'무도 가요제' 또 음원 줄세우기

8곡 실시간차트 1~8위 기록
6일 미공개곡 '댄스왕' 선뵈

MBC '무한도전'이 '2013 자유로 가요제'를 통해 또 한 번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2일 공개된 가요제 음원 8곡이 멜론·지니·도시락 등 각종 음원 사이트의 실시간 차트에서 1~8위까지 줄세우기에 성공하며 뜨거운 관심을 입증했다.

거머리(박명수·프라이머리)의 '아이 갓 씨', 정용돈춘(정형돈·지드래곤)의 '해볼라고', 하우두유둘(유재석·유희열)의 '플리즈 돈 고 마이 걸'이 1~3위에서 경쟁하고 있다.

이어 장미하관(노홍철·장미여관)의 '오빠라고 불러다오', 병살(정준하·김C)의 '사라질 것들', 세션V핑거스(하하·장기하와 얼굴들)의 '슈퍼 잡초맨', G.A.B(길·보아)의 'G.A.B' 등 나머지 네 팀의 곡과 멤버 전원이 참여한 단체곡 '그래 우리 함께'가 8위 내에 진입했다.

가요제가 방영된 2일 시청률 역시 올해 전파를 탄 '무한도전' 방송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시청률 집계기관 TNmS 전국 기준 19.3%, 수도권 기준 23.3%를 나타냈다.

이날 방송에서는 지난달 17일 경기도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에서 약 3만5000여 명의 관객이 운집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친 가요제 실황이 공개됐다. 공연 준비 과정부터 7팀의 개성 넘치는 본 무대까지 가요제 풀 스토리가 담기며 시청자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다.

참가한 가수들도 가요제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다른 출연 가수들에 비해 인지도가 부족했던 장미여관은 다음달 8~31일 용산아트홀 대극장에서 데뷔 이래 첫 콘서트를 개최하게 됐다.

한편 음원 공개 다음날 '아이 갓 씨'가 네덜란드 출신 가수 키로 에메랄드의 '리퀴드 런치'와 유사하다는 표절 의혹이 불거졌다. 그러나 프라이머리 측은 "장르의 유사성 때문에 불거진 해프닝"이라고 일축했다.

/탁진현기자 tak0427@metroseoul.co.kr

커피 CF까지 꿰찬 이정재

대종상영화제 인기상 영예
데뷔 20년만에 제2전성기

데뷔 20년 만에 제2의 전성기를 맞은 이정재(사진)가 거침없는 연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3일 소속사 씨제스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이정재는 최근 한 커피 브랜드의 광고 모델로 발탁돼 촬영을 마쳤다. 김수현·주원·현빈·이병헌 등 주목받는 스타들이 주로 출연하는 커피 광고 모델 대열에 합류함으로써 높은 인기를 입증했다.

1일 열린 제50회 대종상영화제 시상식에서는 올해 개봉된 영화 '신세계'와 '관상'으로 인기상을 수상했다.

이정재는 각각 400만 명과 900만 명 이상의 관객을 동원한 두 편의 영화에서 인상 깊은 연기를 펼쳐 흥행을 이끈 바 있다.

/탁진현기자

카라·에이젝스 등 한자리
DSP 첫 패밀리 콘서트 개최

가요계 전통의 명가 DSP미디어(이하 DSP)가 창사 22년 만에 첫 패밀리 콘서트를 개최한다.

카라·레인보우·오종혁·에이젝스 등 DSP 소속 가수들은 다음달 14일 잠실실내체육관에서 'DSP 페스티벌'이라는 이름으로 합동 콘서트를 연다. 이번 공연은 소속 가수들이 총출동해 22년간의 역사를 재조명하는 축제의 장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현재 소속된 가수뿐 아니라 그동안 DSP를 거쳐간 스타들까지 출연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최종 출연 라인업은 콘서트 티켓 예매가 시작되는 이달 초 공개될 예정이다.

DSP는 1991년 대성기획이라는 이름으로 설립돼 그동안 젝스키스·핑클·클릭비·SS501 등 스타들을 배출하며 아이돌의 명가로 불려왔다.

/유순호기자

엑소, 저스틴 비버와 나란히 서다

유럽 뮤직 어워드 '월드 와이드 액트' 최종후보

아이돌 그룹 엑소(사진)가 세계 무대에서도 대세로 우뚝 섰다.

엑소는 10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열리는 '2013 MTV 유럽 뮤직 어워드'의 '월드 와이드 액트' 부문 최종 후보로 선정됐다. 1차 투표에서 한국 대표로 선정된 데 이어 2차 투표에서도 일본의 모모이로 클로버 제트를 누르고 이 부문 최종 후보에 올랐다.

엑소는 월드 와이드 액트 자리를 놓고 영국 남성 5인조 아이돌 그룹 원 디렉션, 캐나다 출신의 세계적 팝스타 저스틴 비버, 독일 인기 여가수 레나 등 각 지역을 대표하는 7팀의 세계적인 스타들과 9일 오전 7시까지 최종 투표 경쟁을 벌인다.

3차에 걸쳐 진행되는 투표로 선정되는 월드 와이드 액트 수상자는 10일 시상식 현장에서 발표될 예정이어서 엑소의 수상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한편 MTV 유럽 뮤직 어워드는 유럽에서 1년 동안 가장 사랑받았던 음악과 뮤직비디오를 선정하는 시상식으로 올해는 케이티 페리·로빈 시크·스누독 등 글로벌 팝스타들이 참석해 무대를 빛낼 예정이다.

/유순호기자 sun@

수능 전날 찹쌀떡 과식했다간 '후회막급'

수능생 막바지 건강관리법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학력고사 시절보다는 영향력이 적어졌지만 수험생에게 수능 시험일은 역사적인 날임에는 틀림없다. 이 때문에 수험생에게는 수능 당일 컨디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선 시험 당일에 적합한 컨디션을 만들어야 하는데 시험 시작 시간인 오전 8시40분보다 2시간가량 일찍 일어나는 것이 좋다. 대뇌 활동이 잠에서 깬 2시간 이후부터 활성화되기 때문이다. 특히 시험 당일에만 일찍 일어나면 몸은 깨어있을지라도 뇌가 그렇지 못해 멍한 상태가 지속될 수 있으니 남은 기간 규칙적으로 기상하는 게 도움이 된다.

습관처럼 마시던 에너지 드링크도 가급적이면 빼야 한다. 카페인을 과량 섭취하면 두근거림과 어지러움, 불안·메스꺼움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고 아침에 잠에서 깨기 어렵다.

이와 함께 긴장 상태에 있는 수험생은 평소에 비해 소화기관 운동이 저하되고 기능이 떨어질 수 있어 소화가 잘되는 음식이나 평상시 먹던 것들로 식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학부모들이 성적을 올리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 참치와 달걀·콩·견과류 등 DHA와 EPA가 풍부하게 들어있는 음식으로 식단을 짜기도 하는데 짧은 시간 동안 이런 음식을 많이 먹는다고 특별히 좋아지지 않는다.

또 주위 사람들로부터 선물 받은 엿이나 찹쌀떡을 지나치게 섭취하면 신경과민과 스트레스가 생길 수 있고 라면이나 인스턴트 식품 역시 인공 첨가물로 인해 뇌세포의 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다.

오혜영 한림대성심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뇌 기능 향상을 위해서는 적당량의 음식을 먹고 식후 가벼운 걷기로 뇌세포에 산소 공급을 하는 것이 좋다"면서 "특히 뇌 기능 향상을 위해서는 비타민·무기질 등이 풍부한 녹황색 채소와 제철 과일을 먹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황재용 기자 hsoul38@metroseoul.co.kr

과민성 장증후군 환자 절반이 4060세대

국내 '과민성 장증후군' 환자 2명 중 1명은 40~60대의 중장년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5년간(2008~2012년) 심사 결정 자료를 이용해 과민성 장증후군에 대해 분석한 결과 진료 인원이 2008년 149만 명에서 2012년 162만 명으로 5년 새 약 13만 명(8.7%) 증가했다고 3일 밝혔다.

심평원에 따르면 2012년을 기준으로 총 진료 인원은 남성이 약 47%, 여성은 약 53%였으며 연평균 증가율은 남성이 2.1%, 여성이 1.3%였다.

또 진료 인원의 10세 구간 연령별 점유율은 2012년을 기준으로 50대 20.5%, 40대 16.0%, 60대 14.3%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40~60대의 점유율이 50.8%로 집계됐다.

과민성 장증후군은 복통, 복부 팽만감, 배변 장애 등의 증상을 보이는데 치료를 위해서는 과음과 자극적인 음식을 피해야 한다.

/황재용 기자

'미래 의사들' 일일 병원체험

미즈메디병원 '생명탐구' 고2학생 30명 초청 행사

미즈메디병원은 지난달 30일 '생명탐구 프로그램(S.L.P : Search Life Program)'으로 선발된 고등학교 2학년 학생 30명을 대상으로 '1일 병원 체험' 행사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생명탐구 프로그램은 의대 지역내 한의대를 목표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의학 관련 활동을 제공해 미래 의사로서의 자질과 역량을 스스로 가늠해보고 진로 선택과 결정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온은숙 내분비내과 전문의의 '의사가 되는 길', 지희준 아이드림연구소 소장의 '생명공학도의 길' 등의 교양 강좌와 심폐소생술 실습 교육, 외래실·신생아실·진료실 등 병원 주요 시설 견학 등의 행사가 진행됐다.

특히 오은숙 전문의는 "일반인들이 잘 알지 못하는 전문 분야 의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며 의사가 된 후에도 끊임없이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생명공학도의 길 강좌에서는 지희준 소장이 학생들에게 미즈메디병원의 전문 분야인 시험관아기시술 과정과 장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미즈메디병원은 서울 강서구 내 고등학교와 자매결연을 맺고 병원 내 직업군에 대한 특강을 실시하는 등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의료 교육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황재용 기자

"소비자 관찰이 혁신 출발"

한국 P&G 이수경 사장 불황극복 노하우 공개

테스트 마켓 한국에서 최근 히트 제품 릴레이 다우니 퍼퓸 컬렉션서 질레트 5중 면도날까지 시장의 취향 읽은 결과

"불황을 이기는 힘은 소비자를 관찰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앞으로 P&G가 우리나라에서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해 혁신적인 신제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이겠습니다."

다국적 소비재 기업 한국P&G의 이수경 사장은 지난 1일 제주 서귀포 신라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P&G의 원동력은 소비자 관찰을 기반에 둔 제품 혁신"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실제로 P&G는 매년 4000억원을 투자해 100여 개 국가에서 2만 건의 소비자 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시장과 소비자를 읽고 불황을 이기는 히트 제품을 속속 선보이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한국P&G가 올해 출시한 다우니 퍼퓸컬렉션이다. 부피가 크고 무거운 기존 제품이 불편하다는 소비자들의 지적에 따라 3분의 1분량만 사용해도 되는 농축형 제품으로 내놔 소비자들의 큰 호응을 이끌었다. 지난달 선보인 질레트 신제품 역시 한국 남성의 66%가 '자신의 피부가 민감하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를 참고해 수술용 메스보다 얇은 5중 면도날을 적용했다.

지난 1일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한국 P&G 이수경 대표.

한국은 P&G의 아시아 매출에서 6~7위 정도를 지키고 있지만, 한국 시장은 글로벌 혁신 전략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사장은 "한국에서 성공한 제품은 다른 국가에서 성공 가능성이 커 '테스트 마켓'으로 주목받고 있다"며 "특히 한국은 전자상거래와 홈쇼핑 등 신규 유통 채널 발굴을 선도하는 시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P&G에서 매출 비중이 가장 높은 브랜드는 SK-II다. 1980년 일본에서 시작된 SK-II는 국내에서는 2000년에 론칭해 고성장을 이어왔다. 하지만 최근 일본의 방사능 유출 피해와 관련, '방사능 오염'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이 대표는 "원지 P&G 공장에서부터 완제품을 수입하기까지 2~3단계의 방사능 검사를 거치기 때문에 100% 안전하다"며 "앞으로도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올해로 175주년을 맞이한 P&G는 180여 개국에서 300개 이상의 브랜드를 판매하고 있는 다국적 소비재 기업이다. 한국에서는 SK-II·다우니·페브리즈·오랄비·질레트·위스퍼 등 13개 브랜드를 선보이고 있다.

/제주=이지현기자 sjw@metroseoul.co.kr

'리복 스파르탄 레이스' 亞 최초 일산 상륙 3일 경기도 일산 한류월드 K-팝 공연장에서 열린 '리복 스파르탄 레이스 코리아'에서 참가자들이 불기둥을 넘고 있다. 리복 스파르탄 레이스는 미국과 호주 등 전 세계 각 나라의 도시를 돌아가며 한 해 동안 약 85회를 진행, 75만 명의 참가자들이 경험하고 있는 이색 장애물 복합 경기로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열렸다. /뉴시스

'내의 마케팅' 후끈후끈

유니클로 히트텍 10만장 선물 · 보디가드 보상판매

추운 겨울을 앞두고 따뜻한 내의를 준비하는 손길이 분주하다. 주요 업체들이 소비자들의 '월동 준비'를 돕는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유니클로는 11일까지 전 세계 고객에게 히트텍 10만 장을 선물하는 '윈터 윌스' 캠페인을 벌인다.

이번 캠페인은 전 세계 14개국에서 진행되며 "겨울철 추운 환경에서 열심히 일하는 이들에게 히트텍과 함께 따뜻한 마음을 나누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캠페인 웹사이트(heattech.uniqlo.com/2013/kr/)에 접속해 따뜻함을 선물하고 싶은 사람 또는 자기 자신에게 히트텍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사연을 올리면 추첨을 통해 히트텍 교환권을 선물로 준다. 교환권은 전국 유니클로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당첨자는 4일부터 20일까지 순차적으로 발표한다.

좋은사람들의 보디가드는 겨울내의 보상판매 이벤트를 실시한다.

입던 겨울 내의를 기부하면 신제품 겨울 내의 구매 시 세트는 1만원, 단품은 5000원의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기부된 겨울 내의는 전문 세탁업체의 철저한 세탁 및 수선 과정을 거친 후 보건복지부 산하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지현기자

뉴스 & 뉴스

제일모직 '삼성 한국시리즈 우승 기념' 할인 행사

● 제일모직은 삼성 라이온즈의 2013 한국시리즈 우승을 기념해 10일까지 온라인을 포함한 전국 전 매장에서 대대적인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 기간 빈폴맨·빈폴레이디스 등 빈폴의 전 브랜드와 니나리치 여성 액세서리는 1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신사복의 경우 로가디스 가두점은 40%, 갤럭시와 갤럭시라이프스타일·로가디스컬렉션·로가디스그린 등은 20% 할인한다. SPA 브랜드 에잇세컨즈도 20% 할인 행사에 동참했다.

월드키친 '코렐 스냅웨어' 출시 기념 경품 이벤트

● 월드키친이 코렐 스냅웨어 출시를 기념해 다음달 3일까지 '코렐 스냅웨어가 필요한 순간'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월드키친 홈페이지(www.worldkitchen.co.kr) 또는 이벤트 사이트(www.worldkitchen.co.kr/correllesnapware)에서 코렐 스냅웨어가 필요하거나 필요했던 상황을 댓글로 남기면 30명을 추첨해 코렐 스냅웨어를 선물로 준다.

프리메라, 수분크림 공병과 워터리 크림 교환

● 프리메라는 17일까지 '공병 교환 워터리 크림 체험 이벤트'를 펼친다고 3일 밝혔다.

브랜드에 상관 없이 수분크림 공병을 전국 프리메라 백화점 매장과 명동 플래그십스토어로 가져오는 고객에게 '알파인 베리 워터리 크림' 15ml 체험본을 증정한다. 1인 1회 참여할 수 있다.

이비가푸드 사회공헌 '중기청장상'

제1회 사랑받는 기업 포상

이비가푸드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기업청이 주최하는 '제1회 대한민국 사랑받는 기업 정부포상'에서 중소·중견기업 지역사회 부문 중소기업청장상을 받았다고 3일 밝혔다.

자율적인 지속가능경영을 촉진시키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사랑받는 기업'으로 명명한 이 상은 우리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시키는 데 일조하는 우수 경영 사례를 발굴하고 포상함으로써 건전한 기업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중기청은 "이비가푸드는 봉사활동을 통해 매출액의 일부를 기부하고 주변 불우 시설을 방문하는 등 지역사회의 발전에 공헌하고 있다"며 "특히 특정 지역과 계약 재배를 통해 식재료를 공급,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점이 높게 평가돼 이번 상을 수여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지현기자

해법스터디 '핵심노트' 무료

천재교육의 초등 온라인 학습 스터디 '해법스터디'는 한 학년을 마무리하는 시험을 앞두고 시험 대비 핵심노트를 무료로 주는 이벤트를 31일까지 진행한다.

1~5학년 신규 가입 회원을 대상으로 특별 제작한 '교과서 핵심만 콕콕 핵심노트'는 작은 크기로 휴대가 간편하다. 개정된 교과과정을 완벽하게 반영, 전 과목의 핵심 내용을 모두 담고 있다.

문의 www.hbstudy.co.kr

배스킨라빈스 '핑크카' 떴다

배스킨라빈스 핑크카가 지난달 29일 강원도 강릉에 위치한 연곡초등학교에 출동해 더블주니어컵을 전달하고 디저트 만들기 교실을 열었다.

'2013 행복을 나누는 핑크카'는 홈페이지에 사연을 신청하면 핑크카와 배스킨라빈스 임직원들이 아이스크림을 전하며 꿈을 응원하는 파티를 열어주는 활동이다.

문의 www.baskinrobbins.co.kr

서울우유 새 브랜드 '잇츠굿'

서울우유협동조합은 신규 건강 브랜드 '잇츠굿'을 론칭하고 첫 제품으로 '유임밀크' 3종을 선보였다.

잇츠굿-유임밀크는 플레인·스트로베리·초코맛 등 3가지 맛으로, 국산 원유를 45% 이상 사용해 우유 본연의 맛과 영양이 그대로 담겼다. 합성착색료·합성보존료·설탕 등을 일절 첨가하지 않았다. 15개들이 1팩에 1300원.

문의 www.seoulmilk.co.kr

'추신수 FA 외야수 중 2위'

추신수(31·신시내티 레즈·사진)가 올 겨울 미국프로야구 자유계약선수(FA) 시장에 풀릴 외야수 중 2위에 이름을 올렸다.

미국 CBS 스포츠는 3일 FA 시장에 나오는 외야수 톱 10을 선정해 소개하며 자코비 엘스버리(보스턴 레드삭스)에 이어 추신수를 가장 주목할 선수로 꼽았다.

CBS 스포츠는 추신수를 "엘스버리와 전혀 다른 타입의 리드오프로 출루 머신"이라고 소개하며 올 시즌 출루율 0.423을 기록했다고 전했다. 또 "한 시즌 20홈런 20도루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선수다. 추신수를 영입하는 팀은 그의 출루 능력 덕에 리드오프로 활용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유순호기자

김자인 네번째 월드컵 우승

'암벽 여제' 김자인(25·노스페이스·사진)이 올 시즌 네 번째 리드 월드컵 우승을 차지하며 세계 랭킹 1위 탈환을 눈앞에 뒀다.

김자인은 3일 프랑스 발랑스에서 열린 국제스포츠클라이밍연맹(IFSC) 리드 월드컵 7차전 결승에서 47+를 기록하며 우승했다. 4위로 결승에 진출한 김자인은 결승에서 흔들림 없는 모습을 보였고, 4번째 홀드에서 미끄러진 라이벌 미나 마르코비치(26·슬로베니아)를 제치고 정상을 차지했다. /유순호기자

프로축구 전적 (03일)

인천	0	1	울산

[illegible]

부산	1	3	포항

[illegible]

전남	2	1	경남

[illegible]

대전	3	2	대구

[illegible]

프로농구 전적 (03일)

팀	1Q	2Q	3Q	4Q	합계
모비스	20	15	19	25	79
전자랜드	11	18	16	26	71
동부	7	18	16	13	54
오리온스	29	13	18	18	78
LG	22	20	14	25	81
SK	15	15	21	26	77

프로배구 전적 (03일)

현대캐피탈	3	0	우리카드
한국전력	3	2	LIG손해보험
도로공사	3	0	현대건설

<통합 3연패>

삼성 '쩐의 전쟁' 보너스 43억+α

이제는 아시아시리즈 제패 작년 뺏긴 우승컵 되찾겠다

한국프로야구 사상 처음으로 3년 연속 정규리그·한국시리즈 통합 우승의 금자탑을 쌓은 삼성 라이온즈가 더욱 풍성한 가을과 겨울을 맞을 채비를 하고 있다.

통산 7번째 한국시리즈 챔피언에 오른 삼성 선수들은 한국야구위원회(KBO)와 삼성그룹으로부터 최소 43억원의 우승 배당금과 우승 보너스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올 시즌 포스트시즌 전체 입장 수입은 92억3666만7000원으로 지난해 103억9322만6000원에 비해서는 약 11억원이 줄었다.

KBO는 전체 포스트시즌 입장수입 중 40%를 운영비로 제하고 60%를 포스트시즌에 진출한 4개 구단에 배분한다. 정규시즌 1위 팀이 20%를 먼저 확보하고 나머지를 포스트시즌 성적을 기준으로 1~4위

1일 대구구장에서 열린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7차전에서 우승을 확정지은 삼성 라이온즈 선수들이 류중일 감독을 헹가래 치며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팀이 각각 50·25·15·10%씩 가져간다. 삼성은 11억원을 정규시즌 배당금으로 확보했고 한국시리즈 우승 보너스 22억원을 추가로 챙기게 됐다.

모 기업 삼성의 보너스도 있다. 삼성은 지난해와 같이 올해도 10억원의 우승보험에 가입했다. 여기에 최초의 3년 연속 정규리그·한국시리즈 우승이라는 성과를 감안하면 지난해보다 보너스 액수는 늘어날 전망이다.

올 시즌을 끝으로 자유계약선수(FA) 자격을 얻은 박한이·장원삼은 우승의 일등 공신으로 활약해 올겨울을 더욱 즐겁게 보낼 전망이다. 한국시리즈 최우수선수(MVP)에 뽑힌 박한이는 한국시리즈 7경기에서 타율 0.292(24타수 7안타), 홈런 1개, 6타점을 기록하며 1승3패로 몰린 팀이 3연승을 거둬 역전 우승을 일구는 큰 역할을 했다.

장원삼은 한국시리즈 3차전에 선발 등판해 6⅓이닝 동안 2점으로 묶으며 두산 베어스 타선을 틀어막아 역전 우승의 신호탄을 쐈다.

삼성은 국내 최강을 넘어 아시아 최고 클럽의 자리를 노린다. 15~20일 대만 타이중 인터컨티넨탈 구장에서 열리는 2013 아시아시리즈에 한국 대표로 출전해 지난해 뺏긴 우승 트로피를 2년 만에 다시 찾아오겠다고 벼르고 있다.

한국·일본·호주·이탈리아·대만 등 5개국 우승팀과 대만에서 지명한 한 팀까지 총 6팀이 총 상금 12억원을 놓고 겨룬다.

/유순호기자 suno@metroseoul.co.kr

한국전력 첫승 스파이크 3일 경북 구미 박정희체육관에서 열린 프로배구 2013~2014 V리그 남자부 LIG손해보험과의 경기에서 한국전력의 밀로스(오른쪽)이 블로킹을 성공시킨 뒤 선수들과 함께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끈질긴 수비로 주도권을 잡은 한국전력은 LIG손해보험을 3-2로 따돌리고 시즌 첫 승을 따냈다. /뉴시스

15언더 이보미 코스레코드

2위 안선주 5타차 제치고 우승… 시즌 2승

이보미(25·정관장·사진)가 일본여자프로골프(JLPGA) 투어에서 시즌 2승을 차지했다.

이보미는 3일 지바현 모리나가 다카다키 골프장(파72·6652야드)에서 열린 히사코 히구치 모리나가 제과 레이디스 대회 마지막 날 3라운드에서 코스 레코드인 7언더파 65타를 기록하며 3라운드 합계 15언더파 201타로 우승했다.

이보미가 3일 히사코 히구치 모리나가 제과 레이디스 대회에서 우승한 뒤 트로피를 들고 환하게 웃고 있다. /교도·연합뉴스

1타 차 선두로 마지막 라운드를 시작한 이보미는 전반에만 버디 4개를 쓸어담고 보기 없이 3라운드를 깔끔하게 마무리했다.

이보미는 10언더파 206타를 기록한 2위 안선주(26)를 5타 차로 제치고 상금 1260만 엔(약 1억 3000만원)을 받았다. 9월 JLPGA 투어 메이지 대회인 JLPGA 챔피언십 코니카 미놀타컵에 이은 시즌 두 번째 우승을 차지한 이보미는 시즌 상금 7033만 엔으로 상금 랭킹 6위에 올랐다. 올 시즌 JLPGA에서 한국 선수가 우승하기는 9번째다.

한편 신지애(25·미래에셋)는 8언더파 208타를 쳐 공동 4위에 올랐다. /유순호기자

한국 여자농구 일본에 대패 준우승

한국 여자농구 대표팀이 국제농구연맹(FIBA) 제25회 아시아선수권대회 결승에서 일본에 패하며 준우승을 차지했다.

한국은 3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일본과의 결승에서 43-65로 졌다.

승부는 초반에 갈렸다. 1쿼터 막판까지 11-11로 팽팽히 맞서던 한국은 1쿼터 종료 1분30초를 남기고 일본에 연속 8실점 하며 주도권을 뺏겼다.

이어진 2쿼터에서 일본은 시작과 함께 연달아 8점을 몰아 치며 27-11로 점수 차를 벌렸고 한국은 16-37로 무려 21점 차나 뒤진 가운데 전반을 마쳤다.

일본은 전날 중국과의 준결승에서 체력을 많이 소진한 한국을 전면 강한 수비로 시종일관 압박했으며 3쿼터에는 26점 차까지 간격이 벌어졌다.

한국은 이승아·박혜진(이상 우리은행) 등 젊은 선수들을 기용하며 반전을 꾀했으며 3쿼터 막판에는 '에이스' 변연하(KB국민은행)의 활약으로 34-44로 따라붙었다. 하지만 승부를 뒤집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황재용기자 hsoul38@metroseoul.co.kr

박 대통령 '위기의 마이웨이'

정론탁설
유 병 철
<언론인>

지금 여야 간 극한 정쟁 속에 박근혜 대통령의 마이웨이 스탠스가 어디까지 이어질 것인가에 국민적 관심이 모이고 있다. 대선이 치러진 지 1년이 다 되는 동안 소모적인 정쟁으로 민생이 뒷전으로 밀려나 있으니 여야 간 대치 정국은 갈수록 꼬여만 가고 있다. 그러나 당 대 당의 구도로 지금 정국을 풀기는 거의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박 대통령은 "정쟁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입장에서 마이웨이 스탠스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지난주 박 대통령은 잠실 야구장에 나가 한국시리즈 3차전에서 시구를 했다. 이때 민주당은 '헌법 불복 규탄대회'를 열었다. 이어 28일에는 정홍원 국무총리가 취임 후 처음으로 '긴급 대국민담화'를 발표해 민생을 위한 국회 차원의 협조를 요청했다. 민주당은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며 '정치적인 술수'로 평가절하했다.

박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야당이 주장하는 내용에 한결같이 못마땅할 수는 있다. 사실 야당은 위원 여두 박 대통령을 폄하하는 원색적인 표현을 동원하면서까지 일관되게 공격해왔다.

그렇다고 해서 국정의 최고책임자인 박 대통령이 이러한 야당과 언제까지 대치 상태로 갈 것인지 다다수 국민들은 박 대통령의 행보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비록 국정원 댓글 사건 등에 책임이 없다고 해도 수습할 책임은 있기 때문이다.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리서치뷰) 결과 박 대통령의 직무능력 지지도가 절반 이하인 46.6%까지 내려갔다.

따라서 박 대통령의 마이웨이 스탠스가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도 있다는 우려의 소리가 높다. 물론 지난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선거개입 의혹을 철저히 밝히고 관련자를 문책하라"고 지시했지만 이것만으로는 정쟁을 종지시킬 수는 없을 것 같다. 각계 원로들과 지혜를 모은다든지 등으로 적극적인 대국민 호소를 통해 꼬이만 가는 정국을 풀어나가려는 열정이 요구된다.

지금 유럽의 병주로 떠오른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3선에 성공해 영국의 마거릿 대처 이후 새로운 여성 지도자가 됐다. 메르켈 총리의 리더십은 여러 가지로 평가할 수 있다. 그 가운데 "나에게 정파는 필요 없다"면서 초당적으로 국민과 심의 정치에 올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해방 후 우리나라 대통령 어느 대통령을 막론하고 야당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한 적이 없다. 따라서 박 대통령은 야당과의 관계 개선이 이뤄져야 보다 성공한 대통령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다.

포토프리즘

청계천의 가을밤 밝힌 등축제

지난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계천에서 개최된 2013 서울등축제에 많은 시민들이 화려한 등불을 구경하고 있다. 주말 저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40분 이상 기다려야 들어갈 수 있을 정도였지만 기다림 끝에 입장한 사람들은 얼굴에 뒤덮지 밝은 미소를 띠고 있었다. /손진영기자
son@metroseoul.co.kr

'면피용 국감'이 남긴 숙제

뉴스룸에서
김 민 준
<정치사회부장>

지난달 14일 시작된 19대 국회의 국정감사가 사실상 막을 내렸다.

이달 초 정보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의 '헌의 국감'이 남아있지만 여야가 합의한 20일간의 국감 일정은 1일로 일단락됐다.

박근혜 정부 들어 처음 열린 이번 국감은 '신의 직장'에 오른 공기업이 임원 연봉을 과도하게 올리더거나 성과급 잔치를 벌이는 등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 실태를 꼬집는 성과도 있었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대선불복 정쟁에도 자산관리게 대응해 먹을거리 안전 문제, 국공립 병원 유지원의 나트륨 과다 섭취 문제, 신용카드사 고금리 리볼빙 서비스 시정 필요성 등 생활밀착형 이슈를 집중 제기하고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고 자평했다.

민주당은 국군사이버사령부와 국가보훈처의 대선개입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고, 4대강의 총체적 불법 비리, 원전 비리, 정부기관의 예산 남비 등을 지적하는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국민은 이번 국감은 여야 간 대립으로 '민생 국감'과는 거리가 멀었다고 지적한다.

국정감사장이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과 역사 교과서를 둘러싼 좌우 이념 논쟁 등의 성토장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이다.

특히 피감 대상 기관이 630개로 사상 첫 600곳을 넘어서며 수박 겉 핥기 식 국감이 이어졌고, 무더기 증인 출석과 호통치기, 막말 등 구태도 재연돼 '국감무용론'이 어김없이 제기됐다.

현장에서 국감을 지켜봤은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은 지난달 24일 19대 국감에 대한 중간평가에서 'C학점'을 주며 국회의원들이나 피감 기관이나 '국감 기간만 넘기면 된다'고 생각하는 안이한 태도를 이번 국감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았다.

이어 증인 채택 공방 등에 따른 파행과 외교통일위의 전시성 재외공관 국감, 피감 기관의 부실을 지적해 놓고서도 사후 조치를 챙기지 않아 매년 같은 질의와 답변을 되풀이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제 중요한 것은 국감에 제기된 문제가 관철될 수 있도록 여야 의원 모두 감시 기능을 철저히 해야 하는 것이다.

특히 정기국회를 앞두고 여야 간 입법 전략을 가다듬어야 한다. 외국인 투자 촉진법, 부동산 활성화법, 중소기업 지원법,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처리해야 할 법안이 산적해 있다.

제발 이 기간에는 여야 간 당칭을 줄이고 민생과 경제 살리기에 전력을 쏟아주기를 당부한다.

단풍일지(丹楓日誌)

인문학 산책
김 민 웅
<성공회대 교수>

산사(山寺)로 접어드는 길은 세속을 조율하는 경계선이다. 그건 단지 풍경이 달라지는 것만을 뜻하지 않는다. 빈손과 빈 마음으로 터벅터벅 걸으면, 바람과 숲 그리고 흙 냄새가 우리를 맞이해준다. 냉정한 도시에서 살아남기 위해 진똑 긴장하며 무장을 갈했던 몸이 어려는 사이에 자기도 모르게 점차 허공이 되어간다.

세월이 지나면 혹 우리도 바람결이 되어 다무 사이를 스치든가, 아니면 나무가 되어 흙속에 뿌리를 내리든가 또는 흙으로 돌이가 생명의 싹을 틔우는 원초적 존재로 복귀하지 않을까? 우리의 생명은 한번 시작된 이상 끝남이 없다. 시간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마모되어가는 생명의 힘은 마침내 소멸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세계로 진입해서 새로운 빛깔로 태어나기 마련 아닐까?

가을은 봄과 여름의 임무를 마친 나뭇잎들이 낙하해 지상으로 돌아가기 전 하루의 잠필하여 무엇인지 보여준다. 그러나 그것은 전시(展示)가 아니다. 계절이 바뀌어 짙은 의 녹색을 잃고 기력이 다해 마지막 혼신의 힘을 다한 소진의 흔적이 아니라, 아름답게 살아온 삶이 절정에 이른 존재만 뿜어낼 수 있는 위례이기 때문이다.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훈훈할 듯이 찬홀해진다.

내장사로 뻗어나간 산책로에는 단풍나무의 붉은 아지가 겹겹이 늘어서 있다. 그 아래를 오가는 이들은 여유로운 산보를 넘어 어느새 진지한 순례자가 된다. 호흡이 달라지고 걷는 속도가 자연을 닮아간다. 가다가 문득 멈춰 절경에 녹아드는 찰나를 놓치지 않으며, 스스로 그림이 되어 애초부터 거기에 그렇게 있어왔던 것처럼 포즈를 취한다. 자연이 넘쳐주는 화폭 안에서, 사랑하는 이들은 더더욱 화사한 표정이 되어 서로에 대한 애뜻함을 다짐할 것이다.

정읍으로 오기 전날 전주의 한옥 "양사재(養士齋)"에 하룻밤 묵으며 다시금 절감했던 것은 우리의 옛집은 문을 열면 열뜰이요, 뒤로 다시면 장독대 저편이 신 밭이고 골목을 향한 창밖으로는 세상과 소통하는 문이 달려있음이다. 그런 까닭에 자연의 정취는 진으로 스며드는 일에 머뭇거림이 없으니, 잠에서 깨어난 나그네가 그 기운을 흠뻑 받아 천리장도(千里長途)라도 지치지 않을 것만 같다.

그리고 만난 내장산 단풍의 석조는 과객(過客)의 백발 은빛 머리에 다시 청춘을 얹어준다. 내 안에 나무(木)의 바람(風)이 서로를 껴안고 나무 한 그루(楓) 소리 없이 자리나고 있다.

'독불장군' 원격 의료

기자수첩
황 재 용
<생활레저부>

정부가 본격적으로 원격 의료를 추진하기 시작했다. 원격 의료는 정보통신 기기를 활용해 의사가 환자를 관리하는 서비스로 보건복지부는 2010년 처음으로 이 정책을 추진했지만 의료계와 시민단체들의 반발로 일단 한 걸음 물러났다.

그리고 다시 도전을 시작한 지금은 더욱 상황이 어둡다.

입법예고가 나오자마자 복지부로 모든 창끝이 쏠렸다. 우선 의료계의 움직임이 신속했다. 대한의사협회가 대정부 투쟁을 준비하고 있으며 대한의원협회, 대한중소병원협회 등도 원격 의료 추진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전문성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의료계와의 어떤 협의도 없는 일방적인 정책 추진이 문제라는 것이다. 물론 이전에 추진됐던 시범사업이니 결과 예측도 전무한 상황이다.

여기에 약사·시민단체들도 나섰다. 특히 시민단체들은 원격 의료 도입이 대자본을 위한 특혜 사업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원격 의료 철회를 강력하게 주장했다.

이처럼 강한 반발이 계속되지만 복지부 역시 멈출 생각은 없어 보인다. 복지부가 개정안 입법예고 후 의료계와 협의를 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 이는 세부 사항은 조율해도 정책의 방향을 바꾸지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작 필요한 것은 국민에게 더욱 도움을 주는 제도다. 이를 위해서는 원격 의료를 둘러싼 당사자들과의 소통이 전제돼야 한다. 원격 의료에도 전장을 던지기 전 도전할 만큼 충분한 준비가 됐는지 자문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모든 야구팬 여러분께
우승의 영광을 바칩니다

2013년 마지막 경기가 끝났습니다
승자도 패자도 없었습니다
모든 선수들의 노력과 팬 여러분의 사랑만이
경기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연습과 도전을 거듭하며
땀으로 그라운드를 누빈 모든 선수 여러분,
때로는 환호로 때로는 눈물로
선수들과 함께 달려 주신 모든 야구팬 여러분,

고맙습니다
성원을 잊지 않겠습니다

삼성라이온즈 **2013 한국시리즈 우승!**

SAMSUNG